

柔道

Vol.128

judo.sports.or.kr

유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 대한유도회 회보 2021 여름호



특별인터뷰

전기영 IJF 심판위원장

박용조 대한유도회 부회장

국내대회

2021 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

<특집> 2020 도쿄올림픽 | 유도

한국 유도, 올림픽 전망

국가대표팀 감독 출사표

국가대표선수 13인 프로필

올림픽 관전포인트

역대 올림픽 도전사

유도 지방화 시대(12)

울산광역시유도회

유도 JOB

경찰 유도 특별채용 합격생들

꿈나무를 찾아서

용인대 이준환 & 관산중 이준현 형제



CONTENTS

2021 SUMMER
Korea Judo Association
Vol.128



발행일
2021년 7월 15일 | 통권 128호

등록번호
송파 바 00008

등록일자
1986년 9월 30일

발행인 겸 편집인
조용철

인쇄처
(주)제이앤제이미디어

발행처
대한유도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올림픽문화센터 1층

TEL 02-422-0581
FAX 02-420-4995
Homepage judo.sports.or.kr
E-mail judo@sports.or.kr

02 특별 인터뷰①

전기영 IJF 심판위원장

06 특별 인터뷰②

박용조 대한유도회 부회장

10 <특집> 2020 도쿄올림픽 | 유도

- 10 이 악문 한국 유도 대표팀
종주국 안방에서 자존심 회복 노린다
- 14 국가대표팀 감독 출사표
금호연 남자대표팀 감독 & 배상일 여자대표팀 감독
- 16 국가대표선수 13인 프로필
- 24 올림픽 관전포인트
- 26 역대 올림픽 도전사

30 국내대회

2021 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

36 유도 지방화 시대(12)

- 36 인터뷰 - 울산광역시유도회 박경석 회장
- 39 학교 탐방 -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유도부

42 현장스케치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시험 현장

44 꿈나무를 찾아서

한국 유도 유망주 형제
용인대 이준환 & 관산중 이준현

48 유도 JOB

경찰 유도 특별채용 합격생들이
후배들에게 건넨 조언

52 유도 뉴스

53 2021년도 제2차 정기승단자 명단

한 국 유도의 영웅이라 불리는 전기영 용인대 교수가 드디어 국제유도연맹(IJF) 수석심판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선수, 지도자, 행정가로서 승승장구한 전기영 위원장은 IJF 경기위원, 슈퍼바이저 등을 이전에도 역임하며 한국 유도를 널리 알렸다. 한국 유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전기영 위원장을 지난 7월 6일 용인대학교에서 만났다.

4년 임기에 200명 국제심판 관리 “책임감 크고 긴장돼요”

■ 한국 유도에 경사가 났습니다. 교수님께서 국제유도연맹(IJF) 수석 심판위원장이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책임감이 큽니다. 이제 바로 올림픽이 열려요. 물론 첫 공식 일정이었던 6월 초에 헝가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를 잘 마무리해 좋긴 하지만,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가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열리잖아요. 지금은 책임감도 크고 긴장도 돼요.

■ 이전보다 더욱 바빠진 삶을 살게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IJF 슈퍼바이저를 맡을 때도 학교 측의 배려나 대한유도회의 지원으로 바쁜 삶을 이겨냈어요. 그때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이제는 모아졌고, 모두가 함께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 봐요.

■ 어떻게 뽐혔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알고 싶어요(웃음).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2018년에 슈퍼바이저 직책을 처음 맡았는데, 슈퍼바이저는 심판위원장 밑에 부위원장급이라고 보면 돼요. 심판을 감독하는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심판들을 교육하고, 지도편달하는 역할이었죠. 또한 심판들이 오심을 했을 때 바로잡아주는 역할이죠. 한 3년 정도 했는데 7명의 슈퍼바이저 중에서도 제 평가가 좋았나 봐요. 운이 좋게 저에게 기회가 왔죠. 심판위원장 임기는 4년입니다.

■ IJF 심판위원장은 복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심판위원장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루마니아 다니엘 라스카우, 우즈베키스탄 알멘 바그다사로프까지. 총 세 명이에요. 그 밖에 200개국이 IJF 가맹국으로 속해 있는데, 그중에서도, 200여 명이 국제 심판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올림픽을 위해 경쟁하는 선수들처럼 심판들도 랭킹제와 여러 평가를 통해 점수를 내리죠. 그것을 관리하는 역할입니다. 또한 올림픽 이후에는 룰에 대해 계속해서 회의를 해요. 이전에 나온 의견들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회의하고요. 새로운 룰을 한 번 적용해 반응이 좋다고 하면 유지하고, 안 좋으면 다시 머리를 짜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죠.

■ IJF 심판위원장이 됨으로써 따라오는 대우나 명예도 궁금한데요. 일단 심판위원장은 IJF 집행부에 속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전이 붙어요. 공항에 도착하면 개인 비서, 개인 차가 붙고요. 어디든 출입할 수 있는 VIP 카드가 나오고요. 호텔도 최상급이죠. 혼자 가끔씩은 ‘출세했다’라고 생각해요(웃음).

■ 심판위원장으로서 ‘이 부분만큼은 신경이 쓰인다’ 하는 부분이 있나요.. 심판의 판정에 불만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때는 지도자나 팬들에게 반드시 설명해 줘야 해요. 왜 이랬는지,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설명해 줘야 해요.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해요. 설명을 하려면 심판들이 정확하게 룰을 숙지해야 해요. 어설프게,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안 돼요.

■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지만 현장과 심판 간의 괴리를 줄이는 게 중요하겠네요. 심판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할까요. 자기가 친한 국가와 선수를 머릿속에 두면 안 돼요. 종립의 입장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려야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한 쪽으로 쏠리는 판정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가 필요해요.

■ 한 경기를 책임지는 심판들도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위원장님은 더 할 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 남다르죠. 가끔 비디오 판독을 보고 모호한 판정이 나올 때가 있어요. 혼자서 결정할 수 없을 때가 분명 오죠. 그럴 때는 심판들이 심판위원장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심판위원장은 경험이 많은 만큼, 보통은 심판위원장의 의견을 따라가죠. 그럴 경우 심판위원장이 모든 결과를 책임져야 해요. 일단 심판들의 오판이 나오지 않게 끈 교육을 해야 되겠죠. 이미 수십 년간 심판을 했기에 능력이나 기능에는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라니까 가끔 실수를 하거든요. 집중할 수 있게끔 어깨를 토닥여 주고 격려해 줘야죠.

“강형원 선생님과 김정행, 조용철 회장님 도움이 컸습니다”

■ 30여 년을 유도와 함께 걸어왔어요.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요. 선수 생활 은퇴하고 줄곧 방학 때를 이용해 각종 해외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유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죠. 노력한 결과, 2015년에 IJF에서 ‘경기위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저를 불렀죠. 한국 유도와 나 자신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어요. 열심히 했고, 3년 뒤에는 슈퍼바이저, 그리고 여기 심판위원장 자리까지



한국 최초 IJF 심판위원장에 오르다

‘한국 유도 영웅’ 전기영 IJF 심판위원장

오게 됐어요.

▣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정말 많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웃음). IJF 심판위원장, 대한유도회 이사, 한국대학유도연맹 전무이사, 용인대학교 경기지도학과 교수까지 맡고 있어요.

▣ 현역 시절, 업어치기의 달인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때 그 순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제가 올림픽 한 번, 세계선수권 세 번 우승을 했어요. 그중 1995년에 일본 지바에서 열렸던 세계선수권이 기억이 나요. 요시다 히데이코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요. 결승전에서 히데이코를 만났죠. 한일전이라는 특수성과 '절대 지지 말자'라는 압박감, 긴장감이 왔죠. 하지만 제가 밟다리걸기 기술을 앞세워 우승을 했거든요. 상대는 제가 업어치기에 능하니 거기만 생각하고 왔을 텐데 말이죠. 우승하고 시상대에 오르는데 정말 짜릿했어요.

▣ 아시안게임 메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 않나요.

한국은 유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가 힘든

나라에요. 남들은 올림픽을 두세 번씩 나가는데 저는 한 번밖에 못 나갔어요(웃음). 국내 선발전을 통과하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 지도자로서도 성공 가도를 달렸어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최민호, 이원희 선수가 기억에 남죠.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이원희,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최민호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 선수들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고요. 대회 나가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재밌었어요. 큰 슬럼프가 없었죠. 특히 최민호 선수가 2004년 아테네에서의 아쉬움을 딛고 2008년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딴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힘든 순간을 모두 봐왔기에 더욱 그랬죠.

▣ 한국인 최초로 IJF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이 되셨습니다. 정말 성공한 유도인의 삶이라고 봅니다.

그게 2015년도였어요. IJF 경기위원 처음 시작할 때였죠. 아스타나 세계선수권이 열릴 때 초청이 왔어요. 저는 그냥 오라니까 갔거든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기자들도 몰랐고요. 그런데 가보니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몇십 명이 와서

취재를 하는데 부럽더라고요. 저는 와이프가 사진 찍어준 게 전부였죠. 명예의 전당이 '대단하긴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알았죠.

▣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성적이 좋으면 건방져질 수도 있고, 이기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고등학교 은사님이신 강형원 대한유도회 승단심의위원장님께서 항상 '운동만 잘 해선 안 된다. 예의를 갖추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또한 운동을 잘하니 대학교수를 꿈꾸며 공부도 하라고 하셨죠.

저에게 많은 교훈을 주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 생활을 할 때 김병주, 윤동식이라는 뛰어나고 걸출한 라이벌이 있었어요. 93년 세계선수권 우승했을 때, 김정행 회장님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나갈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그냥 유도 잘 했던 선수로 묻혀를 텐데 말이죠. 그때부터 승승장구해 지금까지 왔네요. 물론 이번에 심판위원장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한유도회 조용철 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따랐기에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 경기대 출신이신 위원장님께서 2005년, 비용인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용인대 교수로 임용이 되셨어요. 의미가 남다르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마워요. 박사 과정을 마칠 즈음에 교수의 꿈이 있었죠. 사실 모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당시 모교에는 문제가 있어 학교가 혼란 속에 빠져 있었어요. 저를 서포트해 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외로웠죠. 다행히 당시 용인대 총장님이셨던 김정행 회장님께서 '너 같은 사람이 잘 되어야 제자들이 보고 따른다. 귀감이 되어라'라고 하시면서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항상 감사하죠.



"유도는 나에게 운명이자 숙명"

유도만을 생각하는 남자 전기영

▣ 최근 몇년 한국 유도의 성적이 아쉬웠어요.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어렵죠.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중요한 파트너 훈련을 많이 못 한 것도 아쉬워요. 훈련량과 자신감은 비례하거든요. 전투량도 상승하고요. 선수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은 훈련 부족은 자신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겪고 있다는 걸 알길 바라요. 초심으로 돌아가, 도전자의 마인드로 준비한다면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이 기대되는 선수가 있나요.

신예인 100kg이상급 김민종 선수가 다크호스에요. 업어치기 등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할 줄 알아요. 물론 유럽의 거구 선수들에 비해 체구가 왜소하지만, 다양한 기술들이 장점으로 다가올 거예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도인이다 유도 팬으로서 73kg이하급의 안창림과 일본의 오노 쇼헤이의 맞대결이 기대가 됩니다. 승패를 떠

나서 전 세계 유도인들이 기다리는 빅매치에요. 결승전에서 맞붙는다면, 멋진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아마 시청률도 최고를 찍지 않을까 싶어요.

▣ 안창림 선수가 오노 쇼헤이 선수에게 6전 6패 열세에요. 어떻게 공략을 해야 할까요.

기존하고는 똑같이 하면 안 되죠. 일단 공격을 하려면 잘 잡아야 되는데, 안창림 선수가 잘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약간은 변칙적인 잡기여도 괜찮으니 선제공격이 중요해요. 주도권을 가져와야 해요. 진짜 안창림 선수가 오노 쇼헤이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딴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 한국 유도, 그리고 세계 유도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요.

심판위원장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죠. 직책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는 유도가 예전의 인기를 되찾는데 힘을 주고 싶어요. 많은 유도 팬들께서는 '룰이 개정되면서 재미없게 끝난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분명 엘리트 체육이 재미가 없는 건 맞아요. 유도는 한판이 많이 나와야 재밌는 경기예요. 그런데 서로를 너무 잘 알다 보니 소극적인 경기가 이어지고, 팬들은 그런 유도에 실망을 하죠. 어떻게 하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볼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죠. 또한 선수들의 멘탈, 기술적인 부분을 연구하고 공부해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제자들에게 들은 생각을 통해 저도 성장할 수 있다고 봐요.

▣ 전기영에게 유도란 어떤 의미인가요.

표현이 웃기긴 한데, 운명이면서도 거스를 수 없는 숙명이에요. 정장을 맞춰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 날이 있어요. 뭔가 유도가 저에게는 정장처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항상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죠.

▣ 향후 목표가 있다면요.

일단 심판위원장 역할을 잘 해야죠. 또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학교 수업을 또 열심히 하고 제가 배운 것들을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우리 유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도쿄올림픽이 여러 우려와 관심 속에 열려요.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 유도인들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국에 많은 유도관들이 생겨 더 많은 유도인들이 나오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더 힘을 합쳐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더 노력하겠습니다. ☺





60년 간 이어온 유도 인생 나는 뱃속까지 유도인

박용조 대한유도회 부회장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시작한 유도

박용조는 솔직담백한 사람이다. 꿈수 같은 걸 전혀 모른다. 차분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 섬세하기까지 하다. 1954년 대구광역시에서 7남매 막내로 태어난 박용조는 경상북도 궁도협회 회장직을 역임한 부친 故박동백 씨의 영향을 받아 어릴 적부터 운동을 즐겨하곤 했다. 박동백 씨는 한국에 합기도 무술을 보급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하다. 집안에선 공부를 시켜 평범한 사업가로 키울 요량이었다. 하지만 박용조는 평범한 삶은 원치 않았다. 그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자 했다. 유도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로 결심한 것이다. 얼마 안 가 관두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결국 그는 유도부가 있는 대건고에 입학했다. 자신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부모님도 유도를 계속해도 좋다고 허락했다.

“지금은 소천하신 아버님께서 운동을 워낙 좋아하셨다. 광복 이후 합기도가 우리나라에 보급될 수 있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경상북도 궁도협회 회장직을 10년 넘게 역임하시기도 했다. 그래서 저 역시 아버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찍이 운동에 눈을 뜨게 됐다. 유도는 애시당초 중학교 입학하기 전 취미 활동으로 잠시 즐기는 정도였는데, 나는 일반적인 평범한 삶보다

박용조 부회장은 뱃속까지 유도인이다. 현역 시절 남들처럼 화려한 선수생활을 보내지 못했지만 유도를 향한 애정 만큼은 그 어떤 유도인도 비할 바가 못 된다. 유도계를 잠시 떠나

광산업임대업에 종사하며 성공한 삶을 살아간 그가 다시 유도계로 돌아와 대한유도회 부회장직을 맡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7월 9일 강원도 평창에서 박용조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눴다.

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유도를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마음으로 유도 선수로서 길을 걷고자 결심하게 됐다. 초기에는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 때 당시에는 유도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유도가 좋았다. 결국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도부가 있는 대구 대건고에 입학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1972년 박용조는 당시 서울 종구 소공동에 있던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에 입학했다. 고된 훈련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눈에 불을 켜고 다시 유도

에 매달렸다. 결국 박용조는 당당히 대한유도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그 뒤 현재는 용인대 총동문회 부회장과 장학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솔직히 나는 유도 하는 것을 좋아하기만 했지, 실력은 그저 평범했다. 그래도 남들처럼 뛰어난 수상 실적을 자랑하며 이름을 날리지는 못했지만, 예를 중시하는 유도라는 종목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내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대한유도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운동할 때만큼은 정말 즐겁게 했던 것 같다. 지금 돌아보면 그 때 유도를 포기했다면 정말 후회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 지금은 용인대로 학교명이 명명 됐지만 유도 명문 용인대의 한 일원이 됐다는 점에도 큰 뿌듯함을 느낀다.”

박용조는 1978년 대한유도학교를 졸업한 뒤 강원도 영월, 태백 등지로 적을 옮겨 광산업에 종사하기 시작했다.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광산업은 평탄 대로를 달렸다. 또한 이외에도 임대업 등을 추가해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피는 못 속인다고 했던가. 그의 몸 속에는 여전히 유도인의 정신이 흐르고 있었다. 박용조는 지난 2016년 대한유도회 부회장직에 선임됐다. 유도계를 잠시 떠나

다른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던 그가 다시 유
도계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고향을 사
랑하는 마음에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다른 업계에서 일을 종사하면서도 가슴 한 켠에는 유도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다. 때마침 조용철 회장님의 권유를 받아 대한유도회 부회장을 맡게 되었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사실 나는 어릴 적 운동만 했지, 행정과 관련한 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내가 과연 유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부회장직에 부임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다행히 임원 모두가 유도회 일이라면 적극 협조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협회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됐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스타일이시다. 한 마디로 굉장히 화끈하시다. 매사에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시며 또 유도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끔 리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신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



김정행 한국유도원 이사장은 그에게 있어
은인과도 같은 존재다. 박용조는 어릴 적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도와 함께 할 수
있었던 데는 김정행 이사장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말한다.

“김정행 이사장님은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제 유도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시다. 우리나라 유도의 계통을 세우고 기틀을 마련하신 분 아닌가. 어릴 적부터 그분을 바라보면서 유도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키워왔다. 김 이사장님은 대학교 입학해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됐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스타일이시다. 한 마디로 굉장히 화끈하시다. 매사에 후배들을 잘 이끌어주시며 또 유도인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게끔 리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신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이시다.”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유년기 시절 그런 매력 때문에
유도를 시작하게 됐다

지금도 유도관에 한번씩 가면
고향에 돌아온 기분을 받는다.
후배들과 유도장에서
함께 교감을 나누면서 선수로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주고 싶다.

A horizontal line with a small circular ornament in the center.

예(禮) 중시하는 유도에 큰 매력 느껴

박용조는 1979년 결혼했다. 슬하에는 딸 (43), 아들(40) 1명 씩을 두었다. 이들은 현재 모두 가정을 이뤘으며 주말이면 손자들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는 늘 겸손을 미덕으로 삼는다. 가족들에게도 “겸손, 또 겸손해야 한다”며 겸손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특별한 좌우명은 없다(웃음). 다만 우리 가족 그리고 후배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면, 바로 겸손이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남을 높인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나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만큼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없다. 교만한 사람에게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싸구려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보석처럼 빛나기 위해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유도를 하면서 가장 크게 깨닫게 된 신조이다.”

박용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강릉 자택 주변의 유도관에 들러 후배 선수들을 지도하곤 한다. 고희(古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도록 이처럼 유도를 향해 끊임없는 애정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유도만큼 예를 알고 지키는 종목은 많지 않다. 유도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 유년기 시절 그런 매력 때문에 내가 유도를 시작하게 됐다. 요즘 들어 골프, 등산 등 여러 운동을 즐기고 있지만 유도관에 한번씩 가면 고향에 돌아온 기분을 받는다. 내가 후배들한테 기술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후배들과 유도장에서 함께 교감을 나누면서 선수로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주고 싶다.”

이와 같이 박용조는 천상 유도인이다. 하지만 그는 요즘 들어서 고민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유도를 즐기는 인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는 이럴 때 일수록 유도인끼리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클럽 저변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되새겼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그 전부터 유도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다. 저번 확대가 가장 큰 문제다. 엘리트 운동부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물며 유도부가 폐부되는 학교도 더러 있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동반되어야 유도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전처럼 좋은 시절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유도계 인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관심

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엘리트 운동부가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클럽 유도를 좀 더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할 것이다. 유도회 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

고 유도가 발전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박용조 부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1시간 여 동안, 그에게서 누구보다도 유도를 사랑하는 애정이 강하게 느껴졌다. 비록 선수로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유도를 통해 많은 것을 돌려받았다고도 말했다. 이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유도를 놓지 않았던 박용조 부회장은 유도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 고 밝히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죽는 날까지 항상 윤도인이라는 점을 잊지

한용주 부회장 약력

1953년 12월 25일 대구

력 대구 대건고 졸업(1972년)
대학원도학교 졸업(1979년)

| | |
|-----------|----------------------|
| 2004 | 강원도유도회 부회장 |
| 2005 | 우즈베키스탄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단장 |
| 2008~2016 | 대한유도회 이사 |
| 2011 | 몽골월드컵대회 단장 |
| 2016~현재 | 대한유도회 부회장 |
| 2020 | 강원도유도회 고문 |



이 악문 한국 유도 대표팀 종주국 안방에서 자존심 회복 노린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당시 한국 유도 대표팀은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였다. 김원진(60kg급), 안바울(66kg급), 안창림(73kg급), 곽동한(90kg급) 등 남자 대표팀 4명이 세계 랭킹 1위여서다.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 토르 등 수퍼 히어로들이 모인 영화 속 무적 군단 어벤져스에 빗대 '유도 어벤져스'로 불렸다. 또 전원 20대 초중반이라서 유도계는 향후 10년을 책임질 황금 세대 탄생을 기정사실로 여겼다. 기대와 달리, 결과는 참혹했다. 한국 유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노골드(안바울·정보경 은, 곽동한 동)' 굴욕을 맛봤다. 기량도 경험도 부족했다. 그로부터 5년. 올림픽의 시간이 돌아왔다. 유도는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한국 유도는 이번 대회에서 자존심 회복에 나선다.

국 유도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6체급(60·66·73·90·100·100kg 이상 급), 여자 7체급(48·52·57·63·70·78·80kg 이상 급) 등 13체급에서 금메달에 도전 한다. 유도 종주국 안방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일본은 자신감에 차 있다. 전 체급(남녀 각 7체급) 석권을 노린다. 남녀 대표팀 선수들은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라서 금메달의 의미는 남다르다. 반드시 도쿄에서 태극기를 휘날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와신상담한 어벤져스

김원진(안산시청), 안바울(남양주시청), 안창림(KH그룹 필록스), 곽동한(포항시청)은 이번 올림픽에서도 한국의 간판 선수다. 기존 어벤져스 멤버에 조구함(KH그룹 필록스)이 가세했다. 그 역시 두 번째 도전이다. 조구함은 리우 올림픽 직전 무릎 심지인대를 다쳤다. 수술 대신 출전을 강행했지만, 조기 탈락했다. 겉으로는 5년 전과 같은 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크게 달라졌다. 우선 세계 랭킹 1위 선수는 없다. 안바울

이 가장 랭킹이 높다. 자신의 체급에서 3위다. 안창림은 4위, 김원진은 9위다. 곽동한은 넷 중 가장 랭킹이 낮은 16위다. 세계 랭킹은 낮아졌지만, 기량과 경험은 업그레이드를 거듭했다. 금호연 남자 대표팀 감독은 ‘선택과 집중’했다. 메이저 대회 위주로만 참가하며, 선수 체력을 아꼈다. 대신 올림픽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했다. 앞서 한 차례 올림픽을 경험한 데다 지난 5년간 훈련하며 한층 노련해졌다. 전원 금메달 후보다.

안창림은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 받는 선수다. 도쿄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3세라서다. 쓰쿠바대 2학년이던 2013년 전일본학생선수권에서 우승했다. 그가 전국 대회 첫 금메달을 딴 곳이 바로 올림픽 경기가 치러질 도쿄 무도관이다. 안창림은 일본 유도계로부터 귀화를 권유를 받았지만,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이듬해 용인대로 편입했다. 일본의 기술에 한국의 체력 유도를 더한 그는 2018년 바库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으로 세계 정상급 선수로 올라섰다. 안창림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선 숙적 오노 쇼헤이(일본)

를 넘어야 한다. 오노는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 일본의 간판 스타다. 안창림은 오노를 상대로 6전 6패다. 다행히 한끗 차이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에서도 정규시간 4분, 연장전 7분 9초를 합해 무려 11분 9초 혈투 끝에 골든 스코어 절반패로 졌다. 당시 시상대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안창림은 도쿄에서 설욕을 꿈꾼다.

66kg급 안바울과 100kg급 조구함은 남자 선수 중 금메달에 가장 근접했다는 평가다. 안바울은 리우 대회 은메달의 아쉬움을 금빛 환희로 바꿀 준비를 마쳤다. 한때 발목, 갈비뼈 부상 등으로 부진했지만, 지난해부터 최상의 컨디션이다. 실전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매트 위에서 벌어질 모든 상황과 변수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마련했다. 조구함은 리우 올림픽이 끝나고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키 177cm로 헤비급 선수치고 작은 편이지만, 순발력을 주 무기로 190cm대 거구들이 즐비한 100kg급 무대를 평정했다. 김원진과 곽동한은 다크호스다. 김원진은 올림

픽 금메달을 아버지 영전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올해 1월 도하 마스터스에서 금메달을 따낸 뒤, 아버지 별세 소식을 뒤늦게 듣고 오열했다. 당시 유가족은 국제대회에 참가 중인 김원진이 경기에만 집중하도록 별세 소식을 결승전 후에 알렸다. 곽동한은 금메달리스트의 멘털을 길렀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강자를 만나면 주눅이 들었던 그는 많은 경험을 통해 ‘강철 멘털’로 거듭났다.

무서운 막내 둘

남자 대표팀 21살 막내 김민종(용인대)은 이번 올림픽에서 주목해야 할 기대주다. 그는 2000년생이다. 19세이던 2019년 국가 대표 1진을 휘차기로 무섭게 프레온라인을 겸해 열린 도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깜짝 동메달을 땄다. 무제한급 선수로는 작은 키(183cm, 체중 135kg)의 신인이 2m 이상 거구를 연달아 고꾸라뜨리자, 세계 유도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후 1년 반 사이에 80위권이던 세계 랭킹이 14위까지 경총 뛰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된 사이 기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백전노장 김성민을 접전 끝에 물리쳤다. 그는 ‘유도 강호동’이라 불린다. 90년대 초반 쌔름판을 호령한 천하장사 강호동과 닮은 점이 많아서다. 현역 시절 강호동(1m82cm, 130kg)과 체격이 비슷하다. 웃을 때 작아지는 눈도, 화려한 승리 세리머니를 즐기는 모습도 판박이다. 김민종은 “올림픽에서 크게 사고 한 번 치고 멋진 세리머니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금호연 감독은 “기존 주축 선수들에 김민종이 가세해 균형 있는 신구 조화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 “금메달 1개 이상을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대주는 또 있다. 여자 57kg급 김지수(경북체육회)다. 김민종과 동갑내기다. 김지수 역시 경험은 많지 않지만, 무서운 상승세다. 재일교포 3세인 김지수는 슈쿠가와고 1학년과 3학년 전국대회 우승을 했을 만큼 기량이 출중했다. 청소년과 성인 대표팀을 오가던 그는 지난해 57kg급 국가대표 1진이 됐다. 뒤늦게 올림픽 출전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성장은 가팔랐다. 재일교포 안창림에게 대표팀 적응 노하우를 전수 받은 덕분이다. 김지수는 불과 1년 만에 권유정과 김잔디를 제쳤다. 국제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입상했다.

여자 팀은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 48kg급 강유정, 52kg급 박다솔(이상 순천시청), 63kg급 한희주(KH그룹 필록스), 70kg급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78kg급 윤현지(안산시청), 78kg 이상급 한미진(충북도청) 등 새 얼굴이 많다. 남자 팀 어벤져스 멤버 같은 스타 선수는 없다. 현실적 목표도 금메달보다는 입상이다. 그러면서도 호시탐탐 금메달을 노린다. 여자 유도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조민선(당시 66kg) 이후 25년간 금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배상일 여자 대표팀 감독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 경쟁력 있는 선수들이라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올림픽에선 유도 종목 최초 2관 왕의 주인공이 탄생할 수도 있다. 신설된 혼성 단체전이 있기 때문이다. 혼성 단체전은 남자 3명(73kg급, 90kg급, 90kg 이상급)과 여자 3명(57kg급 70kg급 +70kg 이상급), 총 6명이 한 팀을 꾸려 단체전을 치른다. 도쿄올림픽 유도 종목은 개막 이튿날인 7월 24일부터 일주일간 펼쳐진다. 경량급부터 매일 남녀 한 체급씩 우승자를 가린다. 한국은 역대 올림픽에서 43개의 메달(금 11·은 16·동 16)을 수확했다. 양궁, 레슬링 등 모든 올림픽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다. 유도가 도쿄에서 ‘효자 종목’의 위상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

올림픽 유도경기 일정

7.24(토)



-48kg 강유정



-60kg 김원진

7.25(일)



-52kg 박다솔



-66kg 안바울

7.26(월)



-57kg 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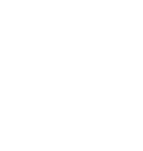


-73kg 안창림

7.27(화)



-63kg 한희주



-70kg 김성연

7.28(수)



-90kg 곽동한

7.29(목)



-78kg 윤현지



-100kg 조구함

7.30(금)



+78kg 한미진



+100kg 김민종

11:00-14:30 예선전 및 8강전
17:00-19:50 패자부활전/준결승/결승전/시상식

7.31(토) 혼성단체전

11:00-14:30 예선전/8강/패자전/준결승
17:00-19:50 동메달전/결승전/시상식



❶ 드디어 도쿄올림픽이 열린다. 그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해왔는가. 파워와 웨이트 훈련을 중심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코로나19로 인해 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많은 유도인들이 도움을 줘서 용인대에서 촌외 훈련을 실시했다. 많은 이들의 도움 덕분에 착실히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❷ 남자 81kg이하급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했다. 아쉬움이 클 것 같다. 81kg이하급은 세계랭킹 25위까지 출전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성호 선수가 26위에 머물며 아쉽게 티켓을 따내지 못했다. 그래도 이 기회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다음 파리올림픽을 기대해보겠다.

❸ 가장 경계해야 될 나라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맞설 전략은 어떻게 되나. 일본하고 조지아를 경계해야 한다. 조지아는 힘 중심의 유도를 한다. 유럽 유도의 정석 같은 유도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정말 까다로운 팀이다. 일본은 홈그라운드 이점도 있고, 자국민들의 엄청난 응원도 받을 것이다. 기술력도 뛰어난 팀이다. 또한 우리 와 자신 있는 체급도 비슷하기에 치열한 접

전이 예상된다. 두 나라와 맞붙는다면, 절대 잡기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처음부터 잡기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가야 한다.

❹ 이번에 처음으로 혼성단체전이 생겼다. 새롭게 생겼는데, 여자 대표팀과 어떻게 구상을 세우고 있나.

자기가 잡아야 될 체급은 무조건 잡아야 한다. 여자 70kg이하급이나 무제한급에서는

승리를 거둬야 승산이 있다. 여기서도 조지아를 경계해야 하는데, 조지아 여자 선수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❺ 메달 획득이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

항상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금메달을 획득한 후, 도쿄 하늘 아래에 태극

기를 꽂고 돌아오겠다.

❻ 가장 경계해야 될 나라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맞설 전략은 어떻게 되나. 일본하고 조지아를 경계해야 한다. 조지아는 힘 중심의 유도를 한다. 유럽 유도의 정

석 같은 유도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정말 까다로운 팀이다. 일본은 홈그라운드 이

점도 있고, 자국민들의 엄청난 응원도 받을 것이다. 기술력도 뛰어난 팀이다. 또한 우리 와 자신 있는 체급도 비슷하기에 치열한 접

뜻에 말기겠다.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❻ 도쿄는 아직도 코로나19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쿄로 넘어가서도 선수들의 건강 및 컨디션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에 변이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녀 걱정이 크다.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

❷ 많은 유도 팬들이 한국 유도의 금메달을 바란다. 각오 한 마디 부탁한다.

항상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금메달을 획득한 후, 도쿄 하늘 아래에 태극

기를 꽂고 돌아오겠다.

❶ 도쿄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래 준비한 대회다. 먼저 1차 관문인 전 체급 출전권 획득에 성공해 기쁘다.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도 있지만, '잘 할 것 같다'는 믿음도 있다.

❷ 여자 63kg이하급 한희주까지 추가 발탁되면서 전 체급 출전권 획득에 성공했다. 감독으로서 뿌듯할 것 같다.

레슬링, 복싱, 태권도 등을 다 합쳐도 전 체급 출전권 획득은 한국 여자 유도밖에 없다. 한 선수도 이탈 없이 올림픽에 나간다는 게 감독인 나에게는 기쁜 일이다.

❸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올림픽은 컨디션 관리가 유독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해외에서 국제 대회가 다섯 번 열렸다. 대회에 다녀온 선수들은 무조건 자가격리

를 해야 했다. 다른 해외 선수들은 자가격리 없이 훈련을 쭉 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선수들은 경기 감각 유지나 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선수들에게 기초 체력 강화 및 전문 유도 체력 강화 훈련을 하려고 강조하고 있다. 체력을 바탕으로 승부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잡기 기술 훈련도 하고 있다.

❹ 가장 경계해야 될 나라는 어디인가.

여자 유도는 일본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이 프랑스다. 그리고 각 체급마다 한 두 명 정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보유한 나라들이 많다. 그래도 일본, 프랑스, 독일의 전력을 높게 보고 있다.

❺ 한국 선수들 중에서 메달 획득이 기대되는 선수는 누구인가.

내가 생각하기에 48kg이하급 강유정이나 52kg이하급 박다솔이 기대가 된다. 또한 78kg이하급 윤현지, 78kg이상급 한미진 두 선수 중에서도 한 명 정도는 메달을 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사실 우리나라 선수들의 세계랭킹이 높지 않다. 세계랭킹 16위에 들어가는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

❻ 많은 유도 팬들이 한국 유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팬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좋은 성적

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격려는 선수에게, 부족한 점과 비판은 지도자

❶ 도쿄로 가기 전까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선수들이 많이 지쳐 있다. 부상 부위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동안 못했던 파트너 훈련을 집중적으로 해 경기 감각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동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훈련도 열심히 하겠다.

❷ 올림픽은 종합감이 큰 무대이다.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조언을 해달라.

김성연 선수를 빼고는 모두 올림픽이 첫 출전이다. 부담감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여러 국제 대회, 아시안 게임 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시차가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면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게 내 역할인 것 같다. 선수들이 많은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다.

❸ 많은 유도 팬들이 한국 유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팬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격려는 선수에게, 부족한 점과 비판은 지도자가 받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 ❾



“도쿄 하늘 아래 태극기 꽂고 돌아오겠다”

금호연 남자대표팀 감독



“선수들에게 영광이 가득하길”

배상일 여자대표팀 감독



도쿄 하늘에 태극기 올리자 유도 대표 13인이 던진 출사표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녀 13명의 유도 대표 선수들은 모두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선전을 다짐했다.

그동안 훌린 땀과 2016년 리우올림픽 노골드의 수모를 모두 이겨내고 일본 땅에 태극기를 끌고 오겠다는 굳은 각오를 내비쳤다.

“두 번째 올림픽
꼭 좋은 성적
거두겠다”

KIM, Wonjin



김원진

안산시청

-60kg

생년월일 1992.05.01.
출생 강원도/철원
신장 / 체중 169cm/66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신철원초-신철원중-신철원고-용인대
주특기 허벅다리 걸기, 볕다리 걸기
취미 브루잉 커피 내리기
유도시작 시기 초등학교 1학년
인스타그램 @monjiny_oly
입상경력 2021 도하마스터스 1위
(가장 최근)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체력이나 기술 모든 면에서 모두 좋아지고 있어요.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쉬는 시간에 커피 내려 마시기.
라이벌은 누구? SMETOV Yeldos(KAZ). 시드상으로 8강에서 카자흐스탄, 준결승에서 일본 선수를 만날 것으로 예상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대체불가.
각오 한마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때 꼭 좋은 성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AN, Baul



생년월일 1994.03.25.
출생 서울
신장 / 체중 168cm/70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석수초-범계중-금곡고-용인대
주특기 업어치기
취미 드라마시청, 쇼핑
유도시작 시기 11살때 부모님의 권유로
인스타그램 @anbaul
입상경력 2021 도하마스터스 1위
2021 타수켄트그랜드슬램 1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올림픽을 경험해봤던 만큼 누구보다 간절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 마음 새기며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잘 안되는 한 가지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목표를 정합니다.
라이벌은 누구? LOMBARDO Manuel(ITA), ABE Hifumi(JPN). 다만 올림픽에서 세계랭킹은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잘 대비하겠습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유지경성(有志竟成).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각오 한마디? 연습한 만큼 후회 없이 경기해서 금메달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66kg

안바울

남양주시청



“**고
금메달 따겠다**”

AN, Changrim

안창림

KH그룹 필록스 유도단

-73kg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

GWAK, Donghan

생년월일 1992.04.20.
출생 경북/포항
신장 / 체중 183cm/93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용흥초-동지중-동지고-용인대
주특기 업어치기
취미 음악 감상
유도시작 시기 중학교 1학년
인스타그램 @gwakdonghan92
입상경력 2020 텔아비브그랑프리 1위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 3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두 번째 올림픽입니다. 전보다 체력, 근력, 유도 실력이 더 올라와 있고 그런 만큼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어렵거나 복잡하고 멘탈이 흔들릴 때는 많은 걸 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행동하고 생각합니다.
라이벌은 누구? SHERAZADISHVILI, Nikoloz(ESP).
90kg이하급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가 크고 잡기 기술에 능합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각오 한마디?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 1994.03.02.
출생 일본/도쿄
신장 / 체중 169cm/78kg
단 공인 2단
출신학교 교토제일초-하치조중-토인고-용인대
주특기 업어치기
취미 독서
유도시작 시기 6살 아버지의 권유로
인스타그램 @anchangrim73
입상경력 2021 도하마스터스 1위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 1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잡념을 떨치며 열심히 운동합니다.
라이벌은 누구? ONO Shohei(JPN), ORUJOV Rustam(AZE).
그 외에 다른 선수들도 모두 라이벌입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평범한 사람.
각오 한마디? 재일교포 첫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생년월일 1992.07.30.
출생 강원/춘천
신장 / 체중 178cm/105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우석초-대성중-청석고-용인대
주특기 업어치기
취미 요리
유도시작 시기 11살 때 선생님 권유로
인스타그램 @choguham
입상경력 2021 카잔그랜드슬램 3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감독님, 코치님께서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여러 파트너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하루하루 올림픽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열심히 훈련하면 멘탈 또한 강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은 누구? WOLF Aron(JPN). 일본 선수가 강력하지만, 100kg이하급 체급에 절대강자는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경계대상입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유도를 좋아하는 사람.
각오 한마디? 멋진 경기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태극기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쿄 하늘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길**”

CHO, Guham



조구함

KH그룹 필록스 유도단

-100kg

“**나는
김민종이다**”

KIM, Minjong

생년월일 2000.09.01.
출생 서울
신장 / 체중 184cm/135kg
단 공인 3단
출신학교 마장초-보성중-보성고-용인대
주특기 업어치기
취미 낚시(고기는 잘 못 잡음)
유도시작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인스타그램 @min_j_o_n_g
입상경력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 2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후회 없는 올림픽을 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침대에 누워 몇 명 때리며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되새깁니다.
라이벌은 누구? Teddy Rine(FRA). 테디리네르는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역사적인 헤비급 선수이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무대에서 이기고 싶습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나는 김민종이다.
각오 한마디? 도쿄 하늘에 태극기를 올리겠습니다!

-90kg

곽동한

포항시청

포항시청

김민종

용인대학교

+100kg

생년월일 1996.08.02.
출생 제주
신장 / 체중 157cm/52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문수초-무선중-여수정보과학고-용인대
주특기 어깨로 메치기
취미 요리
유도시작 시기 초등학교 4학년 아버지의 권유로
인스타그램 @kang_yujeong_96
입상경력 2019 안탈리아그랑프리 3위
2019 뒤셀도르프그랜드슬램 2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무릎 재활훈련과 체력운동, 근력운동하며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도 감각을 끌어올리는 점에 중점을 두고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생각이 많거나 운동이 잘되지 않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기도합니다. 또한 현재 상태를 글로 적고 계획을 세워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이벌은 누구? BILODID Daria(UKR), TONAKI Funa(JPN). 특히 일본 도나카 푸나는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림픽이 도쿄에서 개최되지만 꼭 이겨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습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물 위에 떠 있는 백조 같은 사람.
각오 한마디? 도쿄에서 일본선수들을 이기고 꼭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꼭 금메달
따겠다”

KANG, Yujeong



-48kg

강유정

순천시청

“극한의
상황에서
나 자신을
이기겠다”

KIM, Jisu



-57kg

김지수

경북체육회

“내 마지막
유도 경기인
것처럼
최선을”

PARK, Da-Sol



박다솔

순천시청

-52kg

생년월일 1996.01.21.
출생 울산
신장 / 체중 162cm/55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석수초-범계중-경민비즈니스고-용인대
주특기 업어치기, 안뒤축걸기
취미 인터넷쇼핑, 음악감상
유도시작 시기 초등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인스타그램 @_sol.2222
입상경력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 1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촌의 훈련하면서 올림픽 준비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졌어요.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일단 솔직하게 내 감정을 바라보고 그다음 이겨내야 할 이유를 찾아요.
라이벌은 누구?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 첫판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하지 않은 경기가 없기 때문에 모든 선수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디저트를 좋아하고 유도를 할 때 가장 멋진 유도선수.
각오 한마디? 후회되는 일 없게, 매 경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금메달에 도전하겠습니다!

생년월일 1997.09.02.
출생 경기
신장 / 체중 168cm/67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금오초-경민여중-경민여고-용인대
주특기 허리채기
취미 맛집 탐방
유도시작 시기 12살때 부모님의 권유로
인스타그램 @han_heeju97
입상경력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 1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6월 세계선수권 출전으로 자가격리 기간이 있었지만, 홈 트레이닝 등을 통해 회복 훈련은 잘 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CCM 노래를 들어요.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라이벌은 누구? 63kg이하급 올림픽 출전 선수 모두.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할 수 있다. 한희주!!
각오 한마디? 어렵게 잡은 기회, 한판 한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겠습니다!

“어렵게 온 기회
너무나
간절하다”

HAN, Heeju



한희주

KH그룹 필록스 유도단

-63kg



“리우 때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이번에는
메달을”

KIM, Seongyeon

생년월일 1991.04.12.
출생 전남/순천
신장 / 체중 171cm/71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순천신흥초-전남체중-전남체고-용인대
주특기 소매 들어 업어치기
취미 핸드폰 게임
유도시작 시기 초등학교 2학년 엄마의 권유로
인스타그램 @seong_yeon.kim
입상경력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 2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코로나19로 리우올림픽 때만큼 준비는 못 했지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일회일비하지 않기.
라이벌은 누구? 올림픽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입니다. 출전하는 모든 선수가 메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유도하는 루피.
각오 한마디? 실수는 리우올림픽이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쿄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기를 하겠습니다!

김성연

광주도시철도공사

-70kg

생년월일 1995.08.02.
출생 강원/원주
신장 / 체중 175cm/107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태봉초-북원여중-영서고-용인대
주특기 허리후리기
취미 여행
유도시작 시기 중2(15살)
인스타그램 @han_cute
입상경력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 3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라이벌은 누구?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 다 제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목표가 생기면 끝을 보는 사람.
각오 한마디?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경기하겠다”



HAN, Mijin

한미진

충북도청

+78kg

생년월일 1994.02.14.
출생 강원/철원
신장 / 체중 175cm/78kg
단 공인 4단
출신학교 문혜초-철원여중-철원여고-용인대
주특기 허벅다리걸기
취미 음악감상, 독서
유도시작 시기 중학교 2학년
인스타그램 @4..55pm
입상경력 2021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 1위

올림픽 준비는 잘 됐나? 여러 상대와 겨루며 내 기술을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늘 해오던대로 훈련에 임했고,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힘든 훈련을 이겨내려 노력했습니다.
본인만의 멘탈 관리법은? 개인 운동을 하고, 잘 풀었던 경기 영상을 계속 봅니다. 사실 훈련이 충분히 된다면 불안감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라이벌은 누구? WAGNER Anna Maria(GER). 서로 잘 아는 상대입니다. 저보다 키가 커 낮은 기술을 많이 시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까다로운 선수라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한줄로 표현한다면? 노력하면 된다!
각오 한마디? 매트 위에서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린 사람은 없다!

YOON, Hyunji



“나보다
흘린 땀이 많은
선수는 없다”

-78kg

윤현지

안산시청



2020 도쿄올림픽 유도 경기 방식은?

2020 도쿄올림픽에는 총 386명의 선수(남자 193명, 여자 193명)가 출전하며, 각 체급당 약 28명의 선수 (남자 7체급, 여자 7체급)가 참가하게 된다. 각 체급에는 국가별로 한 명씩의 선수만 출전할 수 있다.

유도 경기는 싱글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으로 금메달과 동메달을 정한다. 두 개의 대진표로 나눠져 토너먼트가 치러지고, 각 대진표의 1위가 결승전에 출전하는 방식이다. 각 체급에서 상위 8위에 들어가는 선수들은 경기 초반에 상위권 선수들끼리 맞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드 배정을 받게 된다.

8강전 네 경기에서 진 선수는 패자부활전으로 넘어간다.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한 두 선수들은 각각 동메달전에 출전하며, 동메달전에서는 다른 대진표의 준결승전 패자와 경기하게 된다.

혼성 단체전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처음 등장하며, 개인전에 참가했던 세 명의 남자 선수(-73kg, -100kg, +100kg)와 세 명의 여자 선수(-57kg, -78kg, +78kg)가 한 팀을 이뤄 올림픽 최초의 유도 단체전을 치르게 된다.

한편, 2020 도쿄올림픽의 유도는 1964 도쿄올림픽 유도 경기가 열렸던 일본 무도관에서 열린다. 이 경기장은 도쿄 2020 테스트 이벤트였던 2019 유도 세계선수권이 열렸던 곳이다.



라이벌을 넘어야 금메달이 보인다

도쿄올림픽,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은 역시 유도 종주국이자 홈팀인 일본이다. 전 체급에서 일본 선수들은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힌다. 대한민국의 양궁처럼,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기가 올림픽 금메달보다 힘들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남자 66kg급에선 올림픽 출전권 한 장을 놓고 아베 히후미와 마루야마 조시로가 단판 승부를 벌이기도 했을 정도다. 남미와 유럽의 파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남다른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 유도는 한국 유도가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다.



최대 경계대상, 역시 홈팀 일본

유도의 종주국인 일본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이미 최정예 멤버를 확정한 일본은 내친김에 전 종목 석권까지 노리고 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 48kg급 준결승에서 패해 동메달을 따낸 뒤 “유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던 당시 대표선수 곤

도 아미의 발언을 생각하면, 이번 대회를 통해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각오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남자 60kg급에는 다카토 나오히사가 출전 한다. 2016 리우올림픽 이 체급 동메달결정전에서 김원진에게 아픔을 안겼던 인물이다. 남자 66kg급의 아베 히후미는 업어 치기에 능하다. 이들 2명 모두 엄청난 순발력을 자랑한다. 남자 73kg급의 오노 쇼이는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다. 일본 특유의 기술유도에 유럽과 남미 선수들 놓지 않은 힘까지 겸비하고 있어 승부가 무척 까다롭다. 나가세 다카노리가 출전하는 81kg급은 강자들이 워낙 많아 확실한 메달을 장담할 수 없지만, 무카이 소이치로(90kg급)와 귀화선수 애런

울프(100kg급)는 한국이 메달을 기대하는 과동한과 조구함이 반드시 넘어서야 할 상대다. 100kg 이상급의 하라사와 히사요시도 세계랭킹 2위의 강자다. 최종량급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근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여자 48kg급에는 떠오르는 샛별 토나카 후나가 버티고 있고, 52kg급의 아베 우타는 자타공인 세계 최강이다. 남자 66kg급 대표 아베 히후미의 동생으로, 잡기 기술에 매우 능하고 스피드가 뛰어나다. 요시다 츠카사(57kg급)와 타시로 미쿠(63kg급)도 나란히 해당 체급 세계랭킹 3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자랑한다. 여자 70kg급의 아라이 치즈루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김성연에게 패했던 선수다. 그러나 이후 꾸준히 대표자격을 유지하며 2017~2018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내는 등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첫 올림픽 출전에 따른 기대가 크다. 78kg급 세계랭킹 2위 하마다 쇼리와 78kg 이상급 소네 아키라도 강력한 우승후보다. 특히 올해 21세인 소네는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과 2019년 세계선수권에서 이 체급을 제패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빗당겨치기와 안다리후리기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다.

남다른 파워로 경쟁력 확보한 유럽 & 남미

문제는 일본만 넘어선다고 모든 게 해결되진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세계 최강이지만, 최근에는 힘을 겸비한 유럽과 남미 선수들의 강세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 유도가 2016 리우올림픽에서 하나의 금메달을 따내지 못한 이유도 유럽과 남미 선수들에게 발목을 잡힌 탓이 컸다. 여자 48kg급 결승에 올랐던 정보경은 파울라 파레토(아르헨티나), 남자 66kg급 결승에 진출했던 안바울은 파비오 바실(이탈리아)에게 당했다. 당시 한 유도인은 “힘

에서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과 남미 선수들에게 밀린다. 특히 체급이 올라갈수록 힘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는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가에 관계없이 메달 후보들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비하고 있다. 남자 60kg급에선 옐도스 스메토프(카자흐스탄)와 프란시스코 가리고스(스페인), 루쿠미 치크비미아니(조지아) 등이 복병으로 꼽히고, 66kg급에선 세계랭킹 1위 마누엘 룸바르도(이탈리아)와 사르도르 누릴라에프(우즈베키스탄) 등을 경계해야 한다. 다카토 나오히사(60kg급), 아베 히후미(66kg급) 등의 일본 선수들은 당연히 우승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남자 73kg급에선 이 체급 최강자인 오노 쇼헤이의 존재감이 워낙 크지만, 그를 견제할 경쟁자들의 면면도 대단하다. 특히 루스 탐 오루조프(아제르바이잔)는 안창림이 직접 경계대상으로 꼽았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량을 자랑한다. 리우올림픽 66kg급 금메달리스트였던 파비오 바실도 한 체급을 올려 이번 대회에는 73kg급에 나선다.

남자 90kg급부터는 유럽과 남미 선수들의 강세가 더욱 도드라진다. 니콜로즈 세라자 디시빌리(스페인)와 노엘 반트 엔드(네덜란드), 크리스티안 토흐(헝가리), 라사 베카우리(조지아), 다블라트 보보노프(우즈베키스탄) 등이 버티고 있다. 100kg급의 세계랭킹 1위는 바를람 리파르텔리아니(조지아)다. 리우올림픽 당시 90kg급 결승에 진출했던 그는 한 체급을 올리고도 줄곧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엄청난 순발력과 파워를 자랑해 다른 선수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다. 이외에도 호르헤 폰세카(포르투갈), 니야즈 일리아소프(러시아) 등 강자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테디 리네르(프랑스)가 주름잡던 남자 100kg 이상급은 그야말로 힘의 향연이다. 리네르는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에 도전하며, 루

카스 크르팔렉(체코), 구람 투시시빌리(조지아) 등 경쟁자들의 실력도 대단하다. 하라사와 히사요시를 내보내는 일본이 대놓고 금메달을 장담할 수 없는 체급이기도 하다. 여자 48kg급에선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파레토를 비롯해 세계랭킹 1위 디스트리아 크라스니치(코소보), 미녀 유도선수로 잘 알려진 다리아 빌로디드(우크라이나) 등이 우승을 놓고 다투다. 처음 올림픽에 나서는 강유정에게는 분명 쉽지 않은 상대들이다. 아베 우타(일본)라는 최강자가 버티고 있는 52kg급도 아만디네 부샤르(프랑스), 리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흘린다 켈멘디(코소보), 오데트 지우프리다(이탈리아) 등의 기세가 무섭다. 57kg급도 제시카 클림카이트(캐나다), 노라 자코바(코소보)의 기세가 엄청나다.

63kg급부터는 웬만한 파워 없이는 승리를 거두기 쉽지 않다. 클라릿 아그베그네누(프랑스)의 기세가 워낙 대단하고, 트르스테냑(슬로베니아), 케틀린 콰드로스(브라질) 등이 뒤를 받치는 형국이다. 70kg급에선 사네 반 디케(네덜란드)와 마르고스 피노(프랑스), 미카엘라 폴레레스(오스트리아) 등을 주목해야 한다. 마델레이네 말롱가(프랑스)가 버티고 있는 78kg급과 이달리스 오티즈, 이리나 킨제르스카(아제르바이잔)의 파워가 돋보이는 78kg 이상급은 미지의 영역으로 통한다.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를 확실하게 체험하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과정에서 부담을

내려놓고 메달 획득에 성공한다면, 이는 엄청난 성공체험이 된다.

올림픽 유도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 모여 경쟁하는 자리다. 그 판도가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다. 남다른 기술로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과 한국 유도에 맞서는 남미와 유럽의 파워 유도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이다. ☎



안병근



하형주

출전한 모든 올림픽에서 메달 수확 한국 유도는 효자종목

올림픽 첫 출전, 첫 메달

유도는 1964년 도쿄올림픽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다. 한국은 4체급에 서상철, 박 청삼, 김의태, 김종달이 출전, 메달 사냥에 성공했다. 국제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김의태가 현재 80kg 이하급이라 할 수 있는 미 들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1968년 멕시코올림픽에서 정식종목에 잠 시 제외됐던 유도는 4체급에서 5체급으로 늘어났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규격의 경기 장을 확정해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다시 정식 종목의 지위를 가졌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한국은 80kg이하급 오승립이 사상 첫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따냈다. 이는 당시 한국 선수단이 따낸 유

유도는 한국 스포츠의 전통적인 효자종목이다.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남자 80kg이하급 김의태가 첫 동메달을 따냈고, 1984년 LA 올림픽에선 안병근과 하형주가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유도는 참가했던 모든 올림픽 때마다 1개 이상의 메달을 꾸준히 따냈다.

한국 유도의 올림픽 역사를 살펴본다.

기 후반 상대보다 더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따냈다. 그러나 경기 종료 3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판은 로드리게즈의 승리로 판정을 번복했다. 로드리게즈가 유효 1개 차이로 승리했는데, 잘못 판정을 했다는 이유와 함께 말이다. 아쉬움은 미들급 박영철과 무제한급 조재기의 동메달로 달 랬다.

금메달 수확, 황금기를 열다

일한 메달이기도 했다. 1980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는 다 잡았던 금메달을 놓쳤다. 라이트급 장은경은 승승장구하며 결승에 진출, 쿠바의 헥토르 로드리게즈와 금메달을 겨뤘다. 장은경은 경

안병근은 결승에서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챔피언으로 대회 2연패를 노리던 에치오 감바(이탈리아)와 만났다. 경기 초반부터 맹렬한 공격을 퍼부은 끝에 안병근은 유효승을 거뒀다. 한국 유도가 올림픽에 출전 한 후 처음 따낸 금메달이었다.

첫 금메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 95kg이하급에서 하형주가 부상을 뚫고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다. 하형주는 올림픽 직전 입은 허리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 하형주는 4강에서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구터 노이로이터(독일)에 종료 38초를 남기고 뒤축 걸기로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그의 결승 상대인 브라질의 비에이라는 큰 점수를 허용치 않겠다는 듯 경기 내내 도망 다녔고, 결국 금메달은 하형주 차지였다.

60kg이하급 김재엽은 당시 22세 어린 나 이에 기대 이상으로 해주었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수확했다.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렸다. 한국 유도는 홈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염원했다. 1984년 LA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재엽은 4강에서 루(프랑스)를 제압하고 결승에 올라 다시 한번 금메달을 노렸다. 시종 일관 케빈 아사노(미국)를 물어붙인 김재엽은 결국 심판 전원 판정승으로 단상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다.



이튿날에는 65kg이하급에 출전한 이경근이 승전보를 전했다. 당시 일반인들에게 생소했던 가위치기를 주무기로 한 이경근은 착실하게 승리를 만들었고, 폴란드의 파블로프스키와 맞붙어 치열한 접전 끝에 판정승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95kg이상급에서 조용철(현 대한유도회 회장)은 1984년 LA올림픽에 이어 두 번째 동메달을 따냈다.

여자 유도, 세계를 메치다

여자 유도는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한국 여자유도 72kg이하급 김미정은 첫 올림픽 도전에서 금메달을 땄다.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였던 김미정은 무난한 대진으로 결승에 올라 숙적 다나베(일본)를 만났다. 치열한 대결을 펼친 두 선수는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판정까지 갔다. 주심은 보다 공격적인 경기를 펼친 김미정



조민선

의 손을 들어올렸다. 김미정의 금메달로 한국 유도는 올림픽에서 3연속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했다. 이 대회에서 60kg이하급 윤현은 부상 투혼 속에 은메달을 따냈고, 71kg이하급 정훈과 78kg이하급 김병주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은 한국 유도의 우수성을 세계에 떨친 대회였다. 1993년과 1995년 세계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66kg 이하급 조민선은 승승장구했다. 결승에서 폴란드의 슈체판스카를 만나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유도에 조민선이 있었다면 남자 유도에는 전기영이 있었다. 86kg이하급 전기영은 한국 유도가 나은 천재로 불리던 선수였다. 올림픽 이전 열린 두 번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그에게 올림픽은 메달 색깔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전기영은 업어치기의 달인답게 예선부터 결승까지 모조리 한판으로 상대를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여자 52kg이하급 현숙희, 56kg이하급 정선용, 남자 71kg이하급 곽대성, 95kg이하급 김민수가 각각 은메달을 따냈고, 여자 61kg 이하급 정성숙과 남자 78kg이하급 조인철도 각각 동메달을 목에 걸어 올림픽 참가 사상 최다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판승의 사나이들

1984년 이후 4번의 대회에서 금메달을 가져왔던 한국 유도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노골드라는 부진에 빠졌다. 특히 금메달 후보로 꼽혔던 선수들의 부진이 아쉬운 가운데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에 그쳤던 것. 절치부심했던 한국 유도는 4년의 기다림 끝에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73kg 이하급의 이원희가 대회 내내 완벽한 경기와 더불어 금메달을 따내, 한국 유도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당시 이



이원희

원희는 이전 윤동식이 가지고 있던 국제대회 47연승 기록을 깨며 73kg이하급 최강자로 군림했는데, 올림픽 무대에서 역시 예선 첫 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서 한판승으로 승리를 만들었다.

금메달이 기대됐던 60kg이하급 최민호는 무리한 감량 때문인지 대회 직전 컨디션 난조에 빠졌고, 8강전에서 몽골 선수에게 어이없는 한판패를 당해 금메달 도전에 실패했다. 이후 패자부활전에 밀려난 그는 남은 경기에서 모조리 한판승을 거두며 동메달로 대회를 마쳤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남자 60kg이하급 최민호는 한 번의 실패를 맛본 탓인지 일찌감치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었고,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전 경기에서 한판승을 거두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가장 체중이 가벼운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상대를 힘으로 완벽하게 압도했는데, 결승전에서 만난 오스트리아의 루드비히 파하셔를 어깨로 들어 메쳐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금메달 행진은 계속된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역시 한국 유도의 금메달 행진은 계속됐다. 대회 초반 부상과 컨디션 난조라는 악재로 메달권으로 평가 되었던 선수들이 무너지는 충격 속에 출전한 남자 81kg이하급 김재범은 무난한 경기로 준결승전에 올랐고, 이번 니폰토프에 업어치기 절반승으로 이겨 결승에 진출했다. 두 대회 연속 결승전에 진출한 김재범의 상대는 지난 대회에서 패배를 안겼던 독일의 올레 비소프였다. 패배의 악몽이 떠올릴 법했지만 김재범은 오히려 상대를 거세게 몰아 붙였고, 안다리 걸기로 유효 2개를 빼앗아 기어이 금메달을 따냈다.

김재범의 금메달 소식과 함께 당시 유도 대표팀 최고령 선수로 출전한 90kg이하급의

최민호



승대남도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오래전 입은 무릎 부상으로 힘겹게 국가대표에 선발되었던 그는 자신의 유도 인생 마지막 대회로 여겼던 올림픽에서 불굴의 의지로 매 경기 사투를 펼쳐 보였다. 특히 8강전에서 당시 세계랭킹 1위이자 우승후보인 일본의 니시야마 마사시를 꺾었고, 준결승전에서는 2007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인 브라질의 티아고 카밀로를 업어치기로 제압하며 결승전에 올랐다. 결승전에서 송대남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다. 작전을 지도하는 정훈 감독의 퇴장이라는 악재를 뚫고 그림 같은 안두축걸기로 절반, 골든 스코어로 금메달을 따냈다.

두 개의 금메달 외에도 60kg이하급 조준호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8강전에서 일본 에비누마에게 패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이후 경기를 모조리 승리하고 3위에 올랐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유도는 14개 체급 가운데 남자 81kg이하급을 제외한 13개 체급 14개 세부 종목에 출전한다. 4년 전의 실패를 뒤로 하고 다시 한 번 한국 유도 제2의 전성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출전한 모든 선수들의 투혼을 기대한다. ☰



실업유도의 최강자를 가리자 2021 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

임주용, 2년 2개월 만에 우승 탈환

한국실업유도연맹과 강원도유도회가 주최하고 태백시체육회와 태백시유도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33개 팀 220여 명의 임원 및 선수들이 참가했다. 10일에는 남자부 3체급(-60kg, -66kg, -73kg), 여자부 4체급(-48kg, -52kg, -57kg, -63kg)이 진행됐다. 11일에는 남자부 4체급(-81kg, -90kg, -100kg, +100kg), 여자부 3체급(-70kg, -78kg, +78kg)이 펼쳐졌다. 12일에는 남녀 단체전 경기를 끝으로 마무리한 3일간의 일정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2020 도쿄올림픽 출전을 확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원도 태백 장성체육관에서 2021 하계 전국실업 유도최강전이 열렸다. 오직 실업팀에 속한 선수들만이 참여한 가운데 각 체급 우승자가 결정됐다.

정 지은 선수와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2021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실업 대회인 만큼 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도 참여할 수 없었다. 오로지 실업팀에 속한 선수들만 참가할 수 있는 '실업 선수들'을 위한 대회였다.

남자 60kg이하급에서는 전승범(포항시청)이 박선주(광주광역시체육회)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66kg이하급 우승자는 홍문호(용인시청)였다. 홍문호는 준준결승에서 류승환(KH그룹 필록스)을 허벅다리 후리기 절반으로 제친 뒤, 4강에서는 강영욱(양평군청)에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선 까다로운 상대 신호(국군체육부대)를 상대로 안뒤축걸기 절반과 누르기 절반을 묶어 한판으로 물리쳤다. 뒤이어 열린 남자 73kg이하급 우승자는 홍문호와 같이 용인시청에 속한 강현철이었다. 강현철은 16강 전에서 채성희(철원군

청)를 상대로 지도 3개를 빼앗아 반칙승을 거뒀다. 이어 8강에서 고재경(경남도청), 4강에서 고승조(코레일)를 모두 누르기 한판승으로 제압하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 상대는 이성근(양평군청)이었다. 강현철은 이번에도 한판승을 거뒀다. 공격 타이밍을 재고 있던 강현철은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호쾌한 소매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두며 73kg이하급 최강자로 우뚝 섰다.

여자 48kg이하급에서는 이해경(광주도시철도공사)이 박은이(고창군청)를 물리치고 오랜만에 정상에 올랐다. 여자 52kg이하급에서는 하주희(고창군청)가 이동현(성동구청)을 물리치고 시상식 맨 꼭대기에 섰으며 여자 57kg이하급에서는 김새리(충북도청)가 정예린(인천시청)을 꺾고 우승했다. 63kg이하급에서는 이주연(광주도시철도공사)이 지윤서(동해시청)를 제압했다.

국군체육부대 강세 돋보여

둘째 날 남자부에서는 국군체육부대의 강세가 돋보였다. 100kg이상급을 제외한 남자 81kg이하급, 90kg이하급, 100kg이하급 모두 결승전에 최소 한 명은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이 속해 있었다. 특히 90kg이하급 결승전에서 맞붙은 이홍규와 이위진은 모두 국군체육부대 소속이었다.

먼저 81kg이하급에서는 임주용(남양주시)

체급 1위 2위 3위

| 체급 | 1위 | 2위 | 3위 | 체급 | 1위 | 2위 | 3위 | |
|--------|-------------|---------------|---------------|-------------|-------|---------------|-----------|-----------|
| -60kg | 전승범(포항시청) | 박선주(광주광역시체육회) | 홍성인(광명시체육회) | 주철진(한국철도공사) | -48kg | 이혜경(광주도시철도공사) | 박은이(고창군청) | 최수희(성동구청) |
| -66kg | 홍문호(용인시청) | 신호(국군체육부대) | 강성환(한국철도공사) | 강영욱(양평군청) | -52kg | 하주희(고창군청) | 이동현(성동구청) | 이현정(제주도청) |
| -73kg | 강현철(용인시청) | 이성근(양평군청) | 정용익(광주광역시체육회) | 고승조(한국철도공사) | -57kg | 김새리(충북도청) | 정예린(인천시청) | 서수빈(고창군청) |
| -81kg | 임주용(남양주시청) | 이준성(국군체육부대) | 이희종(한국마사회) | 김선수(수원시청) | -63kg | 이주연(광주도시철도공사) | 지윤서(동해시청) | 김자정(순천시청) |
| -90kg | 이홍규(국군체육부대) | 이위진(국군체육부대) | 홍석용(용인시청) | 김용일(대구광역시청) | -70kg | 이예원(고창군청) | 남아림(포항시청) | 김혜미(순천시청) |
| -100kg | 최민철(국군체육부대) | 이유한(경북시체육회) | 김영훈(여수시청) | 박영천(국군체육부대) | -78kg | 송세령(부산북구청) | 홍진주(충북도청) | 강경민(동해시청) |
| +100kg | 김이현(한국철도공사) | 양성민(경남도청) | 주태양(포항시청) | 한경수(철원군청) | +78kg | 김지윤(동해시청) | 엄다현(고창군청) | 배혜빈(경남도청) |
| | | | | | | | | 이정은(인천시청) |

단체전

| 체급 | 1위 | 2위 | 3위 |
|-----|------|--------|--------|
| 남자부 | 경남도청 | 한국철도공사 | 국군체육부대 |
| 여자부 | 동해시청 | 고창군청 | 부산북구청 |

* 모범심판상 Ganbold Nyamtsogt * 지도자상 남자부-경남도청 김재식 / 여자부-동해시청 김슬기



청)이 웃었다. 임주용은 1회전에서 김영래(철원군청)에게 부전승을 거둔 후, 2회전에서 김영재(광주광역시체육회)를 상대로 업어치기 한판승을 거뒀다. 이어 8강에서는 정승현(국군체육부대)에게 누르기 한판승, 4강전에서는 이희종(한국마사회)에 지도 3개 반칙승을 거뒀다. 임주용이 이희종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결승전에서 이준성(국군체육부대)을 만난 임주용은 경기 초반 얻은 되치기 절반을 끝까지 잘 지켜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9년 4월 2019 전국실업유도최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우승의 기쁨을 맛본 임주용이다. 남자 90kg이하급에서는 이홍규가 팀 동료 이위진을 물리치고 정상에 섰다. 남자 100kg이하급과 100kg이상급에서는 각각 최민철

(국군체육부대)과 김이현(한국철도공사)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여자 70kg이하급에서는 이예원(고창군청)이 남아림(포항시청)을 물리치고 우승했다. 여자 78kg이하급에서는 송세령(부산북구청)이 홍진주(충북도청)을 물리쳤다. 송세령은 지난 5월 양구컵 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2021년 2개 대회 연속 우승에 성공하며 이 체급 최강자인 윤현지(안산시청)의 뒤를 이을 후계자임을 입증했다. 윤현지는 이번 대회에 참가 신청을 했으나, 도쿄올림픽 출전 준비를 위해 불참했다. 여자 78kg 이하급에서는 김지윤(동해시청)이 엄다현(고창군청)을 이겼다. 한편, 단체전에서는 경남도청이 한국철도공사를 꺾고 남자부 우승을, 동해시청이 고창군청을 제치고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❶



여자 78kg이하급
부산북구청 송세령

“윤현지 언니
닮고 싶어요”

▣ 우승 소감 한 마디 부탁해요.

▲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지난 5월 양구컵에 이어 2021년 두 번째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게 되어 기뻐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우승컵을 들어 올리기까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나요.

▲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없었고, 2019년에는 대회 성적이 아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1년에는 두 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하게 되어 좋습니다. 모든 훈련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승을 하게 되어 기뻐요. 아직 제가 다른 언니들에 비해 경험이 적어요. 육체적으로 많이 피로감을 느꼈는데 보완해야죠.

▣ 코로나19로 인해 컨디션 관리하는 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 유도 본래 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체력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웨이트 훈련이나 등산을 많이 했어요.

▣ 세령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언제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장점은 유연성인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유도의 ‘유’가 부드러울 유(柔)를 쓰거든요. 유연해서 좋아요. 반면에, 기술이나 체력적인 부분은 여전히 숙제고, 더 길러야 될 것 같아요.

▣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고 싶나요.

▲ 최종 목표는 당연히 국가대표죠. 그리고 도쿄올림픽에 나가는 78kg이하급 윤현지 언니를 닮고 싶어요. 언니 나오는 경기를 자주 보거든요. 강하고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고 배우는 편이에요.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각오 한 마디 들어 볼까요.

▲ 나약하지 않고, 다치지 않고, 멋진 선수로 성장하겠습니다.



남자 81kg이하급
남양주시청 임주용

“정말 오랜만에 차지한 우승
기쁩니다”

▣ 2021년 목표가 있나요.

▲ 전국체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큰 목표는 오는 11월에 열리는 국가대표 선발전에 당당히 선발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리는 모든 대회 다 잘하고 싶습니다.

▣ 더 큰 목표를 바라본다면요.

▲ 부끄럽지만 2022년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고 싶어요. 우리 체급은 어느 한 명이 강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강하거든요. 다 이겨야 하기에 더 열심히 해야죠.

▣ 마지막으로 유도인들에게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요.

▲ 제 이름 들으면 ‘아, 이 선수 잘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넘어 올림픽까지 가보겠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2021 하계 전국실업유도최강전



유도 지방화 시대⑫ 울산광역시유도회

지방분권 시대가 열리면서 스포츠도 빠르게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각종 경기가 읍·면 단위 소도시에서 빈번하게 열리고 지방 팀들의 성적도 몰라보게 향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종목이 유도다. 지역별로 뚜렷한 실력 편차를 보이던 경기력도 어느 사이 평준화되었고 특정시도가 독식하던 각종 대회 메달도 이제 골고루 나눠 갖고 있다. <柔道>지는 차례로 각 지방 유도회를 찾아가 그 지역 회장을 인터뷰하고 지역 팀과 유도장 팀방을 통해 실력 평준화의 실상을 분석해본다.

울산광역시 유도현황

| 구분 | 팀 | 인원(명) |
|------|---|-------|
| 초등학교 | 3 | 20 |
| 중학교 | 3 | 31 |
| 고등학교 | 2 | 24 |
| 대학교 | - | - |
| 실업팀 | - | - |
| 유도관 | 2 | - |

※ 대한유도회 등록 기준



일찍부터 맺은 유도와 인연, 회장 역임에 이르기까지

박경석 회장은 이전부터 유도를 비롯한 여러 무술에 관심이 많았다. 대한용무도협회 울산광역시협의회장, 대한민국팔각회 울산시지구 총재 등을 역임했다. 그중에서도 유도를 향한 평소 애정이 남달랐다는 박 회장이다. “제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운동, 특히 격투기에 관심이 많았다”라며 유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를 밝히기도 했다.

유도가 주는 정신수양 측면도 박 회장을 유도로 이끈 요소 중 하나였다. 박 회장은 “모든 무술이 그렇겠지만 유도가 정신수양에서 좋다고 생각한다. ‘유도(柔道)’라는 게 단어 그대로 흐름 속에 도가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주변에 유도 하는 분들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유도와 가까워졌다”라고 돌아본 박 회장은 “다른 단체장 경험도 있다 보니 맡겨주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회장직을 맡기 전부터 울산 유도를 위한 후원도 해오고 있었다. 여러 유도 선수들에게 일찍부터 장학금을 전액 지원해주고 타지역에서 울산으로 오는 지도자들을 위해 숙식비와 거처 등을 제공했다. 그 정도로 유도를 향한 애정은 남달랐다. 실제로 박 회장은 지금까지 후원한 선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가고 국가대표에 뽑

울산광역시유도회 박경석(58) 회장은 2017년부터 울산시유도회 부회장직을 맡아오다가 2021년 울산시유도회 회장으로 당선돼 울산시유도회를 이끌고 있다. 울산시유도회 회장을 맡은 지 약 반년, 박경석 회장이 돌아본 울산시 유도 저변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7월 2일 만나본 박경석 회장은 이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했다.

하는 걸 봤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도 이야기했다.

울산시유도회 전부터 다양한 단체를 이끈 박 회장이 운영에서 강조하는 건 ‘소통’이다. 박 회장은 상대방 의견을 먼저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박 회장은 “의견이 충돌했을 때, 내 의견을 내세우고 주장하면 이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막상 그렇지 않더라. 내가 생각하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니다. 여러 단체를 경험하면서 얻은 나름의 노하우다”라며

“상대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 지금은 습관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많은 유도계 사람들을 만나고자 일정도 많이 잡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찍부터 유도와 인연을 맺은 상태

로 맙은 회장직이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박 회장은 울산뿐만 아니라 유도 전반에 걸쳐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유도 자체가 많이 정체되어 있다. 취임 이후 여러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하루아침에 바뀔 건 아니다. 사회적인 조건을 포함해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현 상황을 짚으면서 “현재 태권도나 복싱은 운동도 하면서 다른 분야를 접목해 체육관이 활성화됐다. 유도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도 기술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연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예산 역시 울산시유도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현재는 울산시에서 나오는 예산 외에 회장과 이사들의 분담금으로 운영 중이다. 유도를 위한 절대적인 기준에서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박 회장은 이러한 재정적인 면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박 회장은 울산시장과 대화를 통해 이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선수층 확보와

새 대회 개최를 목표로

박 회장이 이야기하는 비관적인 상황은 특히 선수층과 연결되어 있다. 울산시 유도는 2002, 2006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차지한 배은혜를 배출했고,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된 바 있는 김재민, 김주윤, 김민경(이상

울산 유도 저변 확대에 최선을

울산광역시유도회 박경석 회장



용인대), 류현지(한국체육대학) 등도 울산 출신이다. 실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얇은 선수층이 문제다.

2021년 기준 울산에 있는 초·중고 팀은 총 8개다. 현재 팀들의 실적이 나쁘진 않지만 대학팀과 실업팀이 없다는 점이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생활체육 측면에서도 유도관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쉽게 다가온다. 특히 실업팀이 없다는 점은 대회를 유치하는 데도 아쉬운 점으로 다가온다.

박 회장은 “제일 중요한 건 선수층이 두꺼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울산에 체육관 숫자가 얼마 안 된다. 우선은 체육관을 더 늘려야 한다. 울산에 체육관이 8개 있는데 20개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유도팀 수가 유소년부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향아리 형태라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최소한 초등학교만이라도 유도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려 학교를 돌아다니며 교장 선생님들과도 이야기를 나누보려 한다. 저변이 확대되어야 다른 쪽 이야기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밝힌 박 회장은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이제 임기가 6개월이 지났고 아쉬운 점도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선수층

선수층 확보와
울산시 유도 저변 확대를 위해
박 회장이 구상 중인
또 다른 목표는 대회 개최다.
박 회장은 스포츠에서
한 종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확보를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울산시와도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라고 향후 계획을 간략히 언급했다.

선수층 확보와 울산시 유도 저변 확대를 위해 박 회장이 구상 중인 또 다른 목표는 대회 개최다. 박 회장은 스포츠에서 한 종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행사라고 한다면 대회를 일컫는다. 박 회장은 “김영찬 전무이사와도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해봤다. 울산시에서 할 수 있는 전

국대회를 유치해보자는 계획을 짜려 하는데 코로나19로 쉽진 않다. 또 현재 유도 대회 계획을 보면 들어갈 틈이 없기도 하다”라면서도 “대한유도회와 협의를 통해 울산에서 대회를 열 계획을 짜보려 한다. 자료도 계속 모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에 없는 실업팀 창단까지 알아보고 있다.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고 코로나19라는 악재도 겹쳤지만 마냥 안 좋은 조건만 있진 않다. 울산시는 2022년 전국체전을 개최한다. 전국체전을 치른 이후에는 현재 공사 중인 새 유도회관도 활용할 수 있다. 선수들이 훈련 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부터 주차장까지 완비하고 있어 대회 개최나 전지훈련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 규모와 시설을 갖출 것으로 울산시 유도회는 보고 있다. 이를 발판 삼아 향후 저변 확대에도 나설 수 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유도팀 창단과 생활체육을 위한 체육관 개관, 대회 개최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유도회관과 함께 추진력을 얻고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박 회장과 울산시유도회다. ●



올바른 유도선수 양성과 생활체육 두 마리 토끼를 노린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유도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에 위치한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지난 2014년 개교해 각 분야 엘리트 선수 육성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가 목표가 아니라도 스포츠를 활용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다. 유도부의 경우, 전국체전에서 메달 획득 경험이 있는 김성은(안산시청)과 김산(수원시청) 등이 초창기 졸업생으로 유도계에서 활동 중이다. 아직 역사가 길진 않지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유도부다.





울산 최대 규모 유도부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한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는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운동선수로서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는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다. 여기에 엘리트 선수를 꿈꾸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수가 목표는 아니지만 다른 목표를 위해 진학한 학생들(유도부의 경우, 향후 경찰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일부 인재반에 있다)과도 함께 생활하면서 운동 외에 학업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유도부는 총 31명이다. 고등부 16명에 중등부 9명이 엘리트 선수를 목표로 하는 전문반 소속 학생이고 선수를 목표로 하자는 않는 인재반 학생이 6명이다. 울산에 있는 다른 중고 유도부와 비교하면 확실히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다. 정운재 감독과 함께 고등부를 담당하는 최규진 코치와 중등부를 담당하는 박순윤 코치가 유도부를 이끌고 있다. 최근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고등부 2학년 백두산이 꼽힌다. 백두산은 지난 4월 열린 제25회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100kg 이상급에서 대학생들을 제치고 당당히 3위에 입상했다. 많은 부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열심히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하지만 코로나19로 환경이 좋지만은 않다. 여기에 올해 초 학교폭력 등 학교 스포츠를 향한 부정적인 논란이 터지면서 학교 스포츠는 더 위축됐고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유도부 역시 영향을 받았다. 2016년부터 유도부를 맡은 최규진 코치는 “운동과 관련해 좋지 않은 부분들이 보여지다 보니 위축된 게 있다. 운동에 전념할 시기인데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이 운동할 시간도 줄어드는 느낌이다. 제약되는 부분도 많아졌다”라고 돌아봤다. 코로나19라는 외부 요인이 아직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도 고민이다. 훈련 일정을 맞추는 것과 대회를 나갈 때 관련 장소를 구하

는 것도 쉽지 않다. 그나마 울산스포츠과학중고는 목적부터 스포츠 선수들에게 맞춰진 만큼 영양 섭취 등의 측면에서는 나은 면이 있다. 최 코치는 최근 학교스포츠를 둘러싼 내외적인 요소만 조금 나아진다면 학생들이 더 성장하고 대학 나아가 사회 진로를 고민하는 데도 긍정적인 요소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트와 非엘리트의 공존이 만들어내는 효과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유도부는 앞서 언급 했듯이 엘리트 선수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이 함께 생활한다.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지만 그렇기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최 코치는 설명한다. “인재반에 있는 학생들도 체육계열로 진학하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들이라 여학생이나 경량급 학생과 운동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힘든 운동을 하면서 전문반 선수들에게 상담

도 하고 또 반대 경우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인재반 학생들은 좀 더 입시에 집중하는 쪽이고 전문반 학생들은 운동에 더 전념한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 고민해서 풀어갈 부분도 있어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학생들 역시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다. 인재반으로 유도부에서 활동 중인 고등학교 2학년 구철민 군은 “경찰 쪽을 준비하고 있는데, 경찰이 되면 유도를 한다고 들어서 미리 경험하고자 유도부로 왔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불편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 오히려 편하고 좋다”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운동량 측면에서도 좋고 또 어느 정도 수준 높은 유도를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라며 긍정적인 면을 덧붙였다.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유도부의 지향점은 학생들이 유도를 통해 더 높은 단계의 꿈을 꾸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최 코치는 “운동뿐만 아니라 공부도 병행하며 각자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방향성이다”라며 “유도를 매개체로 후에 더 좋은 대학을 가거나 체육계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바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선수를 꿈꾸는 학생들은 유도 선배로서, 더 큰 대회에 나서는 걸 목표로 삼을 수 있도록 돋고 싶다”라고 밝혔다. ⑤



울산스포츠과학중고 유도부 부원 명단(총 31명)

고등부 3학년 정유라, 김태환, 우정명, 김주영, 조은비, 이철승

고등부 2학년 최은경, 한수현, 이재현, 진시연, 강민재, 백두산

고등부 1학년 황연진, 한성수, 김보민, 조웅제

중등부 3학년 최민석, 고기룡, 전민기

중등부 2학년 임채민, 지경민, 임지민

중등부 1학년 김동영, 신하륜, 최준영

인재반 지청원, 지우창, 구태우, 구철민, 이수현, 김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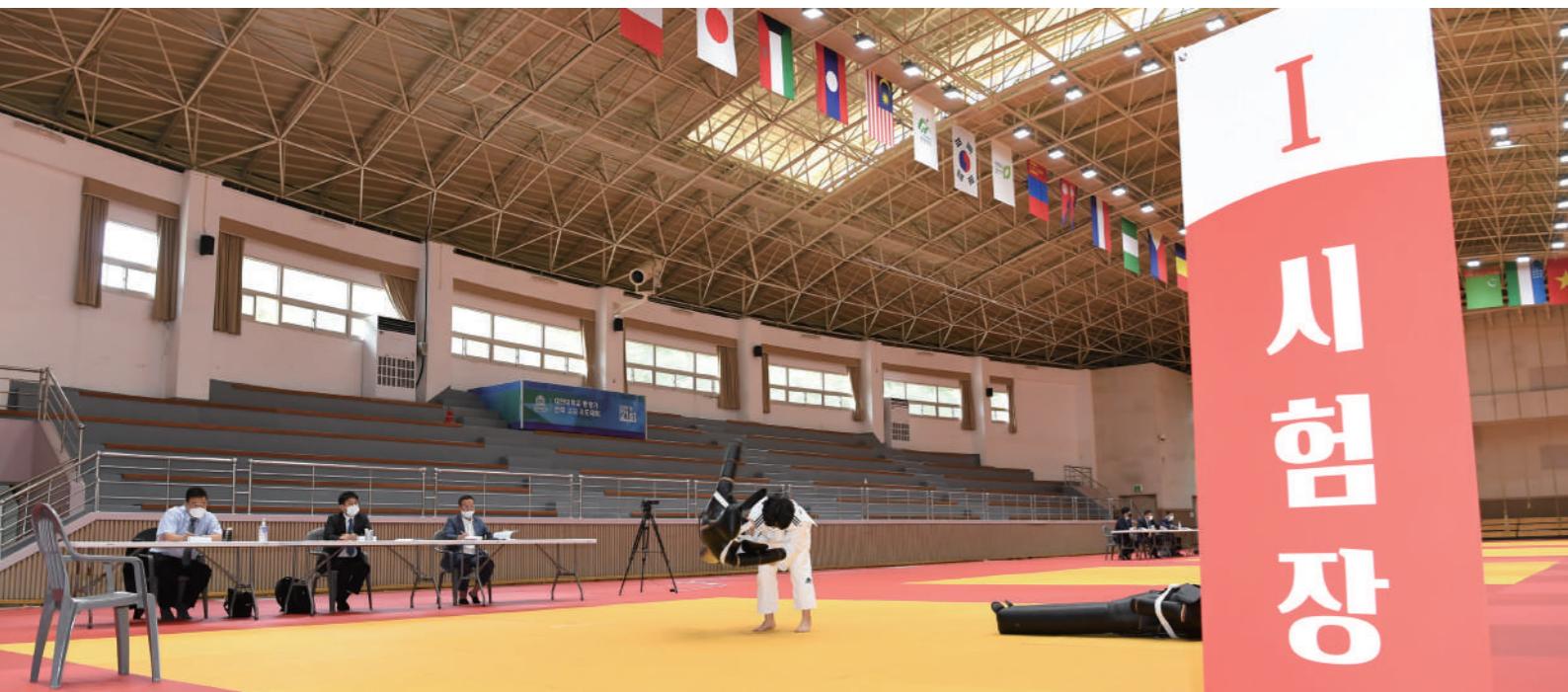
울산스포츠과학고 선수들이 말하는 우리 유도부

3학년 화목하고 운동과 공부 모두 열심히 하는 게 유도부의 장점인데, 특히 코치님과의 관계가 우리 유도부가 내세울 만한 점이다. 코치님을 무서워하는 곳도 있지만 우리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제 3학년이라 입시가 중요 한데, 운동과 공부 병행해 더 높은 곳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

2학년 기숙사 학교라 집에 못 가 최은경 긴 하지만 학교 안에서 친구들, 선후배와 으쌰으쌰 해가며 편하게 생활하고 있다. 이제 여름이라 날도 더워져서 서로 힘들고 짜증 날 때도 있지만 기합 더 넣어가며 열심히 하고 있다.

2학년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백두산 잘 갖춰졌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 재밌게 지낼 수도 있고 운동에도 집중할 수 있다. 학년 상으로는 2학년이라 선배들 말 잘 들으면서 후배들도 잘챙겨주려 하고 있다. 올해 전국체전에 나가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는 게 목표다.

1학년 기숙사와 함께 학생들을 위한 맞춤 음식과 간식도 제공해주고 수업도 운동 선수들에게 맞춰 진행해주는 게 장점이다. 유도부원끼리 단합도 잘되고 친하다. 그래서 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사람 대신 인형 도입’ 코로나 속 달라진 풍경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시험 현장

대한유도회는 지난 6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유도회관에서 ‘2021 유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자격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은 260여 명의 응시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상자격 종류는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등이다.

대학생 20대부터 머리가 희끗해진 50대까지 남녀노소 미래의 유도 지도자를 꿈꾸는 생활체육유도인들이 한 데 모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험을 치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달라진 자격시험 현장의 풍토를 살펴봤다.

코로나 방역에 만전, 시험장도 거리두기

대한유도회에서 이번 시험에 가장 공을 들인 건 뛰니뛰니해도 ‘코로나 방역’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PCR) 검사의 의무화와 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소독은 물론 마스크착용 필수화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치러졌다. 또한 지난해 실기 검정부터 사람�이 아닌 시험용 인형을 놓고 응시자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다. 이는 응시자들에게 합격 당락을 결정 짓는 큰 변수로 작용했다. 응시자들은 그간 익숙했던 사람이 아닌 생



소한 인형을 대상으로 실기를 치르다보니 낙법과 매치기 등 기본 기술 동작을 구현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대회 개최를 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응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매치는 것과 인형을 매치는 것은 분명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방지가 최우선인 만큼 빈틈없는 방역을 통하여 안전한 대회를 치르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 응시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지만, 협회 측에서

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심사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선수와 임원 여러분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험은 체육관 대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 청주유도회관에서 개최를 확정했고, 이를 간 치러진 시험은 아무 탈 없이 그 여정을 마무리했다.

협회 관계자는 “예년만 하더라도 서울·수도권 지역에서 시험을 치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체육관 대관 자체가 쉽지 않았다. 마땅한 대관 시설을 구하지 못해 결국에는 청주에 위치한 유도회관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응시자들도 아마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큰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도 불평불만 없이 먼 곳까지 찾아와 열정적으로 시험에 임해주는 모습을 보면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낀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내년 대회부터는 응시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유도 지도자를 꿈꾸며 시험 치른 응시자들의 반응은

이날 시험 현장에는 전국 각지의 많은 생활체육유도인이 모였다. 미래의 유도지도자 를 꿈꾸는 이들은 합격이라는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굳은 결심과 진지한 자세로 시험에 임했다. 시험 도중 응시자들을 만나 시험 준비과정과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다.

실기·구술 시험 처음 응시한다는 대학생 김 세원(22) 씨는 “유도를 시작한지는 1년 반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호신 목적으로 배우다가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싶어 이번 시험에 참가했다. 아무래도 인형을 상대로 기술을 펼쳐야 하다 보니 생소함이 컸다. 낙법 기술을 제가 목표로 했던 만큼 구현해내지 못해 아쉽다. 하지만 이번에 한번 했으니 다



음 시험 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목표는 유도 4단이다(웃음). 이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시험을 치른 소감을 전했다. 고향인 청주에서 유도관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조봉희(43) 씨는 “많이 긴장되고 떨렸다. 유도를 시작한지는 햇수로 20년 정도 됐는데, 우선 공부하는 모습을 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커 이번 시험에 참가하게 됐다. 유도라는 종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단순 호신용 뿐만 아니라 유도의 정신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인성이 더더욱 강조되고 있지 않나. 시험에 꼭 합격해 건강한 인성과 바른 성품을 전했다.”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저 뿐만 아니라 이번 시험에 참가한 응시자 중 좋은 지도자가 배출되어 대한민국 유도가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지도자로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이번 시험에 참가한 대학생 조세원(22) 씨도 “유도관에서 보조 사범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이번 시험에 참여했다. 긴장을 많이 한 탓에 목표치에 완벽하게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으로 잘 했던 것 같다. 최종 목표는 유도관 관장이다. 뚜렷한 주관과 목표 의식을 갖고 좀 더 전문성 있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김남준 심사위원이 전한 심사 기준은?

대한유도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 이론과 실기·구술의 비중이 모두 똑같다. 각 종목별 70점을 모두 넘겨야 합격이 가능하다. 다만, 이론과 실기는 조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유도 종목 특성상 각종 기술들을 배우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기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심사를 하고 있다.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제대로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어 일반 대중들에게 유도 전파가 정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 유도 유망주 형제

용인대 이준환

관산중 이준현

“유도만큼 재밌는 운동은 없어요”

한국 유도계에서 형제 선수하면 떠올랐던 건 쌍둥이 형제 조준호-조준현이었다. 그 뒤를 이어갈 형제 선수가 등장했다. 바로 용인대 1학년 이준환, 관산중 3학년 이준현이다. 이미 많은 유도인들로부터 뛰성부른 떡잎이라는 극찬을 받으며 쑥쑥 성장하고 있는 준환-준현 형제를 지난 6월 30일 용인대학교에서 만났다.



태권도에서 유도로 넘어온 두 형제

“유도하길 잘한 것 같아요”

이준환은 남자 81kg이하급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경민고 2학년 재학 시절, 2019년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나가 2관왕(81kg이하급, 단체전)을 차지했다. 경기도유도회 서정복 회장이 관심 있게 본 선수였다. 또한 지난 4월 열린 전국청소년유도선수권대회 남자 81kg이하급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2021시즌을 화려하게 열었다.

이준현 역시 제49회 전국 초·중·고 유도연맹전 55kg이하급 중등부 결승전에서 이현빈(구미 도개중)을 한팔 업어치기 절반, 안오금띠기 절반을 둑은 한판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이준환은 전 경기 한판승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차세대 유도 스타로 떠올랐다.

두 형제도 그때를 지금까지 유도를 하면서 느낀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한다. 이준현은 “올해 초 전국 초·중·고 유도연맹전에서 우승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작년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도 열리지 못

했고,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오랜만에 하는 경기라 긴장이 많이 됐는데 다행히 열심히 준비한 만큼의 결과가 나와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준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간 100회 전국체전 우승이 기억에 남는다. 전국체전에서 처음으로 우승했기 때문이다. 또한 단체전 우승도 동료들과 같이 이뤘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준환, 준현 형제는 언제부터 유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을까. 두 선수 모두 처음에는 태권도를 접했다고 한다. 이준환은 “처음에 태권도와 킥복싱을 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밟다리를 여러 번 거셨는데도 내가 넘어가지 않았다. 그때 ‘초등학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영통유도체육관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그때 입문했다”라고 말했다.

이준현은 “처음엔 나 역시 태권도를 했다. 그런데 형이 유도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하겠다고 했다. 처음엔 몰랐는데 우승을 하게 되니까 형이 느꼈던 기쁨을 나도 알게 되었다. 형보다 더 잘하고 싶은 목표가 생기더

라”라고 웃었다.

두 형제는 유도에 푹 빠졌다. 특히 한판승의 쾌감에 이미 매료됐다. “몸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운동이 유도다. 또한 예절을 중시하는 운동이다. 그중에서도 시원하게 한판승을 했을 때의 쾌감은 해 본 사람만 안다. 중독성이 있다.” 두 형제의 말이다.

이준환과 이준현은 지금까지 유도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후회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준현은 “코로나19 전까지는 형만큼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유도에 대해 회의를 느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고, 이준환도 “유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유도가 힘들어도 항상 즐겁고 재밌게 운동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힘든 순간은 있었다. 이준현은 지난 해 이야기를 꺼냈다. 이준현은 “작년에 코치님이 바뀌었다. 오래 정든 코치님과 작별하려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환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같은 선수에게 다섯 번 연속으로 진 적이 있었다. 그때가 제일 힘들



었다. 부담도 많이 되고 심적으로도 힘들었다. 그럴 때 코치님, 감독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큰 힘이 돼주셨다”라고 말했다. 모든 선수에게나 힘든 순간이 오기 마련이다. 그 힘듦을 얼마만큼 잘 이겨내느냐가 중요하다. 그 힘듦을 이겨내야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앞으로 힘들어도 유도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을 거라고 강조했다. 이준환은 “다른 종목도 많이 해봤지만 유도만큼 재밌는 스포츠는 없는 것 같다. 다시 태어나도 유도를 할 것이다”라고 웃었다. 이준현도 “초등학교 때부터 쭉 태권도를 해오다 유도를 시작했다. 난 유도를 잘 선택했다고 본다”라고 미소를 지었다.

준현 “형은 완벽한 사람”

준환 “동생은 겸손할 줄 안다”

체급은 달라도 두 선수는 유도라는 한 종목 아래 같은 길,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달라 부탁했다. 그러자 이준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준현은 “형은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멋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한다.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이준환도 “멋있는 척만 하는 꼬마”라고 웃은 뒤 “준현이는 ‘형이 하면 나도 해’라는 마인드다. 나보다 더 잘 하려고 한다. 기죽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있다.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자만은 하지 않고 겸손할 줄 안다. 스스로 좋은 선수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좋다”라고 칭찬했

다. 그러면서 두 형제는 “얼굴은 내가 조금 더 잘 생겼다”라고 옥신각신했다. 그래도 이준현은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다. 81kg이하급 유망주로 평가받는 이준환에게, 이준현은 어디를 가든 ‘이준환의 동생’이라는 타이틀이 이름 앞에 붙여진다. 이준현 역시 자신의 실력을 통해 유도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데 아직은 형의 후광이 크기만 하다. 형이 매 대회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 ‘이준환 동생이네’라고 말하며 알아봐 주지만, 그게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준현도 속상할 때가 많은 게 사실이었다. 그는 당당하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준현은 “초등학교 때부터 지난해까지, 유도장이든 어디 유도 행사를 가든 나를 이준환 동생으로 알아봐 주신다. 예전에는 동

기들이 그렇게 불러줬을 때 자랑스러웠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후 내가 입상을 하더라도 계속 형의 동생으로 불려야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준현이 잘 안 풀릴 때나, 힘들어 할 때 옆에서 가장 많은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버지와 형이다. 이준현은 “아무래도 형과 아버지가 유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형과 아버지는 나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신다. 내 유도 인생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준환도 “나 역시 동생과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이야기할 게 많다. 유도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보기 좋다”라고 웃었다.

형제의 최종 꿈은?

올림픽 금메달

이준환은 올해 용인대 신입생이 되었다. 20살, 혈기왕성할 시기에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유도밖에 없다. 이준환은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는 정점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오직 유도에만 집중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형제는 지금 이 시기에도 빛나는 내일을 위해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들의 주력 기술은 더 연마하고, 장단점을 파악하며 맹훈련을 하고 있다.

이준환은 “나의 장점은 여려 가지 기술을 여려 방향에서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특기 기술을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다. 그래도 소매 업어치기 기술을 많이 연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현은 “장점은 끈기 있게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 역시 말아업어치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기술을 구사하지 못하는 것 같

다.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두 형제가 삼고 있는 룰모델은 누구일까. 이준현의 룰모델은 놀랍게도 형 이준환이었다. 왜 형을 룰모델로 삼고 있는지 물어 이준현은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다. 나도 나중에는 꼭 형처럼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형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나보다 먼저 올림픽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웃었다.

이준환의 룰모델은 송대남 남자 유도국가 대표팀 코치였다. 송대남 코치는 2012년 올림픽 남자 90kg이하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는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였다. 이준환은 “송대남 코치님은 수많은 시련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업적을 이루신 분이다. 너무 멋있다. 나도 송대남 코치님처럼 멋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형제에게 라이벌은 없다. 모든 선수가 라이벌이다. 이준현은 “체급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하기 그렇다”라고 했고, 이준환도 “라이벌은 아직 없는 것 같다. 내가 부족한 점이 워낙 많다. 모든 선수가 라이벌이다”라고 이야기했다.

두 선수의 올 시즌 목표는 단 하나, 우승이다. 특히 이준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이기에 이번에 나설 수 있는 중등 대회에 모두 나서 전관왕이라는 큰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참고로 이준현은 형이 졸업한 경민고 진학이 유력하다. 이준현은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꼭 전관왕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환도 “나는 오는 10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세계청소년대회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게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형제는 서로 볼 기회가 없어 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애틋하다. 언제 어디서나 서로가 잘 되길 바라고

있다. 끝으로 두 형제는 각오를 다지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꼭 올림픽 금메달을 따겠습니다.”

조준호-조준현 형제처럼 이준환-이준현 형제도 세계를 빛내는 유도 스타가 되길 <유도>지가 기원해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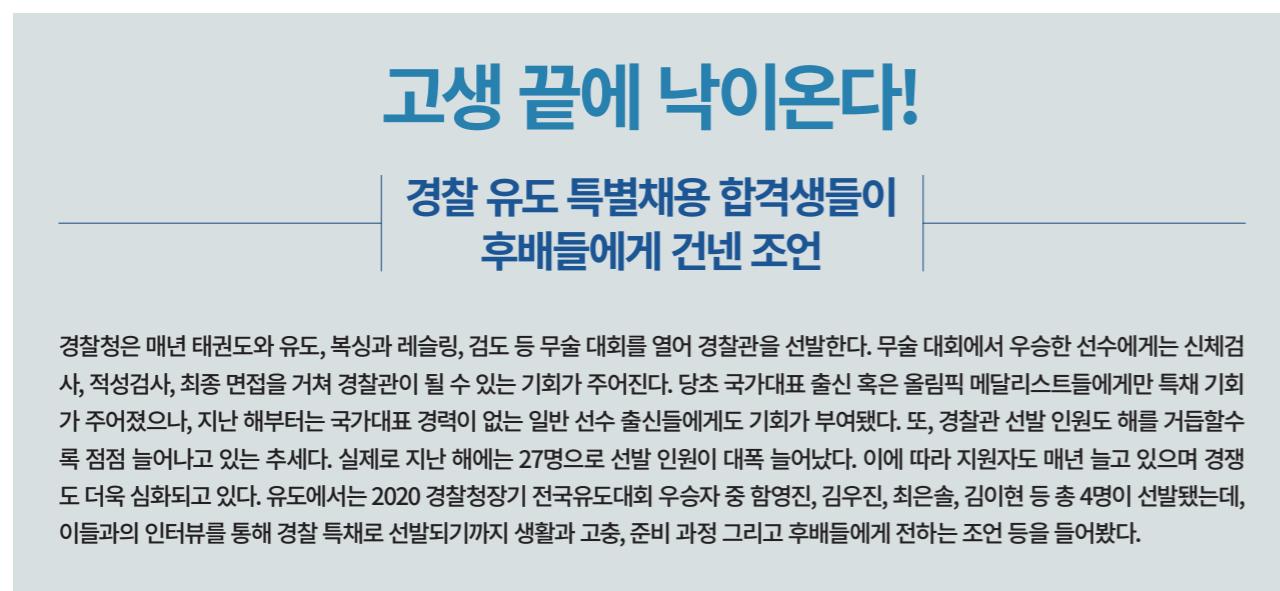
이준환-준현 형제

“부모님,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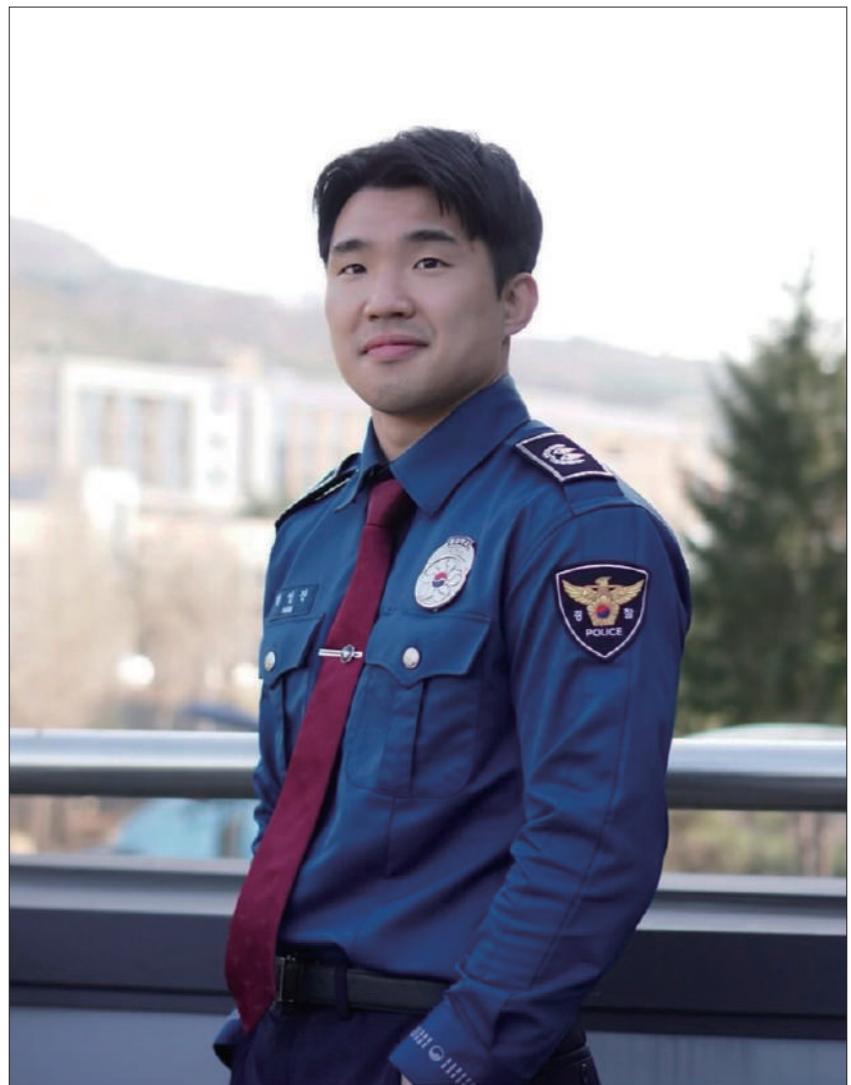
운동선수를 둔 부모님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 모두 유도 선수로 둔 부모님의 삶은 얼마나 힘들까. 이준환-이준현 형제는 언제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유도에 임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부모님에게 하지 못했던 말은 전하고 싶다고 한다.

이준환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응원해주시고 제가 유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 항상 좋은 생각을 하며 더욱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유도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나 안 좋은 습관들 피드백 해주시고 심적으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집 가훈이 ‘제대로 해라’잖아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준현도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형과 더불어 제가 유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진심을 전했다. 이들의 진심은 부모님에게 전달이 됐을 것이다.



경찰청은 매년 태권도와 유도, 복싱과 레슬링, 검도 등 무술 대회를 열어 경찰관을 선발한다. 무술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에게는 신체검사, 적성검사, 최종 면접을 거쳐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당초 국가대표 출신 혹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만 특채 기회가 주어졌으나, 지난 해부터는 국가대표 경력이 없는 일반 선수 출신들에게도 기회가 부여됐다. 또, 경찰관 선발 인원도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해에는 27명으로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원자도 매년 늘고 있으며 경쟁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유도에서는 2020 경찰청장기 전국유도대회 우승자 중 함영진, 김우진, 최은솔, 김이현 등 총 4명이 선발됐는데, 이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찰 특채로 선발되기까지 생활과 고충, 준비 과정 그리고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 등을 들어봤다.



함영진 순경

대구 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
용인대-수원시청

▣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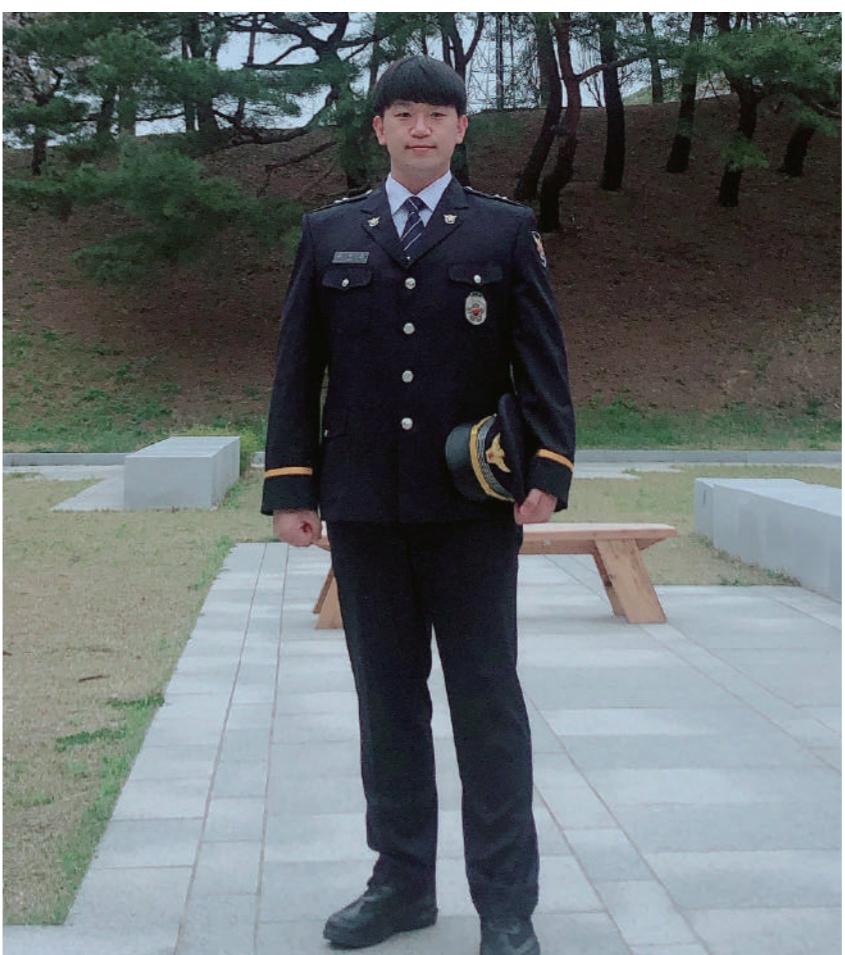
현역 선수 생활을 할 때는 규칙적인 생활과 내 몸을 단련시키기 위해 오로지 나한테만 신경을 쓰면 됐는데, 경찰이라는 직업은 아무래도 신속 출동과 초동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몰라 밤낮으로 항상 긴장하며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조금 힘든 것 같다.

▣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임관한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선배님들을 보면서 배우는 단계다. 현재로선 민원인 응대 하는 것과 지역 순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경찰로 일하면서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

지난 달 자살 시도를 하려던 요구조자의 생명을 살린 적이 있다. 뿌듯함도 있었지만 한 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들었다. 경찰이 된 이후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다.



▣ 유도 선수 생활이 경찰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도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일반인들보다 선수로서 많은 동료 선·후배들을 만나면서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됐고, 이러한 경험들이 경찰 동료들과 업무하는 것은 물론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도 친근하고 융통성 있게 업무 해결을 할 수 있게 됐다.

▣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선수 생활 17년 동안 단 한번도 빠짐 없이 시합장에 찾아와주셔서 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셨다. 선수 생활 할 때는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제는 부모님이 사시는 본가와 제 근무지가 멀지 않는 곳에 있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 앞으로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가.

현역 때는 딱히 어떠한 선망의 대상이 없었다. 경찰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그냥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끔 경찰다운 경찰이 되고 싶다.

▣ 유도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

사실 지난 해 선수 생활을 더 이어나갈지 아니면 경찰 준비를 할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고민 끝에 경찰에 도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지금은 경찰이 돼서 목표를 이뤘지만 마음 속 한 쪽에는 유도 선수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고로 후배들에게는 후회 없는 현역 생활을 하라고 말해주세요.

김우진 순경

비선수 출신

서울 강서경찰서 가양지구대
우석대 경찰행정학과-용인대 양천유도관

▣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중앙경찰학교 4개월 그리고 실습 4개월의 기간 동안 신임 경찰로서의 교육 및 임무 수행을 하며, 선배님들의 멘토링을 통한 전반적인 실무 업무를 배우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이론을 습득하며, 휴일에는 법 과목 및 영어 공부와 사격, 체력 단련을 하며 믿음직한 경찰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구대 업무를 할 때 항상 팀원들이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 신고 출동시, 경찰관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민원인들과 또 비협조적으로 수사에 참여하는 민원인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112신고 출동 및 사고 접수, LOST112(습득물, 분실물) 등록, 지역 안전 순찰, 민원인 응대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 경찰로 일하면서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

첫째 신고와 민원 문제가 해결됐을 때, 둘째 자살기도자의 생명을 지켜주었을 때, 셋째 지역 안전 순찰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또 함께 소통할 때 마지막으로는 부모님에게 더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기에 보람된 일을 느낀다.

▣ 유도 선수 생활이 경찰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도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현행법을 체포할 때 유도 기술을 활용해 쉽게 제압할 수 있다. 또 야간 근무 시, 체력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가족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부모님께서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친구, 교수님, 관장님 등께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앞으로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가.

제 이름의 한자가 도울 우(祐), 나아갈 진(進)이다.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름 그대로 도우며 살아가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

▣ 유도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

정식 선수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같은 유도인으로서 소중한 땀방울 하나 하나 값진 노력이 힘든 것을 알기에 후배들 역시 성공 할 수 있게 항상 응원하며 중심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거목이 되었으면 한다.

최은솔 순경

포항남부경찰서 상대지구대 인천시청-안산시청

▣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중앙경찰학교에서 처음 제복을 입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제복을 입은 제 모습

이 설레었고 신기함 그 자체였다. 중학교 때부터 14년 간 유도만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잠에서 깨면 유도를 하러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지구대에 근무를 하러 가면 매일 매일이 새롭고 즐겁다. 적응 문제는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신임 순경들과 함께 경찰서에 들어가고 있고, 지구대분들께서도 많이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다.

▣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지구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을 초동조치하고 있다. 절도, 가정폭력, 자살기도자 등을 구하기도 하고 주취자들을 집으로 귀가 조치하는 등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다. 야간 근무가 처음에는 가장 힘들었다. 밤 새

면서 근무하는게 힘들었는데 야간 근무하고 이를 쉬고 하니 금세 적응됐다.

▣ 경찰이 되고난 후에 보람된 일이 있었다면.

여성 자살기도자 신고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여성 분이 자살 시도를 위해 창문에 앉

아 뛰어내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각 팀에 여순경이 한명이다 보니 제가 그 분을 많이 다독이고 힘든 일도 잘 경청해드리며 도움을 드리겠다고 하니, 창문에서 내려오셨고 응급실에 가서 진정이 되신 후에는 제 얘기 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아직 경찰 일을 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 때 마음 속으로 경찰이 되길 잘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됐다.

▣ 유도 선수 생활이 경찰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도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주취자들이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 등 상대방을 제압해야하는 상황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때 같은 팀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께 가장 먼저 제일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학창시절 운동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는데, 그 때마다 어머니께서 마음을 잘 잡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 인터뷰를 빌어 어머니께 감사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역으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경찰이 되고자 마음먹었을 때 안산시청 이용호 감독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밀어주셨다. 이용호 감독님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가.

저는 거창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부모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약자의 편에서 도움을 주고 또 운동 선수 출신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

▣ 유도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

아직 경찰 무도 특채와 관련해서 모르고 있는 후배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이 인터뷰를 통해 많은 후배들이 경찰 무도 특채에 대해 알게 되어 훗날 경찰관을 꿈꾸는 후배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김이현 순경

수원 중부경찰서 노송지구대 경기대-포항시청

▣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현역 선수로 운동을 하다가 바로 특채가 되어 공백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혀 다른 일상 생활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되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 좋은 교수님들과 동료들을 만나서 많은 것

을 배웠고, 경찰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 학교를 졸업해 교육생으로서 파출소에 가서도 선배님들께서 업무에 관해 친절히 알려주시고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며 천천히 적응하게 됐다. 아직 실습생 신분

이라 업무보다는 현직에 계신 선배님들 뒤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중이라 힘든 점은 크게 없으나, 선수 시절과는 다르게 12시간 내

내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야간 시간대에 밤을 새는 것이 조금 힘든 듯하다.

▣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실습생으로서 주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막내로서 잡일과 간단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경찰로 일하면서 보람된 일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민원인에게 도움을 드릴수있던 순간이 가장 보람됐다.

▣ 유도 선수 생활이 경찰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도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유도 선수 생활을 하며 길러온 체력과 극한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정신력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제가 유도를 시작하고서부터 특채라는 좋은 기회를 얻기까지 늘 곁에서 바로 잡아주

신 저의 은사님 김준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 어릴 때부터 함께 해준 소중한 친구들에게도 늘 고맙고 언제나 저를 생각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다.

▣ 앞으로 어떤 경찰이 되고 싶은가.

항상 경찰이라는 직업에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다.

▣ 유도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

제가 남에게 조언을 할 위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조언보다는 앞으로 경찰 특채의 길을 걷게 될 후배들을 위해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



2021~2023년 유도복 공인업체 선정

본회는 4월 29일과 5월 26일 두 차례 공인심의위원회를 열고, 15개 유도복 공인업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유도복 공인업체들의 공인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7개월이다.

유도복 공인업체

| 업체명 | 상표 | 전화번호 |
|---------|----------------|----------------|
| 대명스포츠 | 호랑이 | 02-441-0806 |
| 무술사 | 사자 | 02-2237-9991~2 |
| 한길스포츠 | R | 051-625-3007 |
| 파이팅필름 | FIGHTING FILMS | 010-2713-5888 |
| 짐마켓 | HIKU | 070-8222-7424 |
| 야와라스포츠 | YAWARA | 031-455-0808 |
| B&B스포츠 | BB | 063-278-9991 |
| 제우인터내셔널 | adidas | 02-3019-3841 |
| 엠코리아 | IRON | 02-2233-6933 |
| 제우스스포츠 | Z | 010-9291-0480 |
| 유심스포츠 | KUSAKURA | 010-3866-9409 |
| 디에이스포츠 | KAPPA | 010-7274-9812 |
| 히로스포츠 | HIRO | 051-201-1515 |
| 이폰기어코리아 | IPPON GEAR | 010-9297-0524 |
| 해준상사 | PRO-SPECS | 031-455-1827 |

대표팀, 2021 세계유도선수권대회 파견

본회는 6월 6일부터 13일까지 평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2021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 남녀대표팀 16명(지도자 3명, 임원 2명, 선수 11명)을 파견했다.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한 선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망주 선수들 위주로 파견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라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파견자 명단

| | |
|---------|--|
| 단장(1명) | 안병근(용인대학교) |
| 감독(2명) | 금호연(남자대표팀), 배상일(여자대표팀) |
| 코치(1명) | 장문경(여자대표팀) |
| 임원(1명) | 김민수(대한유도회/코로나19 매니저) |
| 선수(17명) | -60kg 이하림(한국마사회) -66kg 김찬녕(국군체육부대) -73kg 안준성(한국마사회) -81kg 이성호(한국마사회) -90kg 한주엽(용인대학교) -100kg 원종훈(양평군청) +100kg 김성민(KH그룹 필록스) -48kg 강유정(순천시청) -52kg 정보경(안산시청) -63kg 한희주(KH그룹 필록스) -70kg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

2021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검정시험 실시

2021년도 체육지도자 실기·구술 검정시험이 6월 21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충북, 청주유도회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검정시험에는 260명이 응시해 205명이 합격했다.

합격 인원

| 2급 전문 | 71명 | 유소년 | 40명 |
|-------|-----|-----|-----|
| 2급 생활 | 55명 | 노인 | 39명 |

2021년도 제2차 정기승단심사 실시

본회 2021년도 제2차 정기승단심사가 5월 27일, 청주유도회관에서 실시됐다. 이번 승단심사는 1, 2반 심의위원 24명이 참석해 대면으로 실시됐으며, 8단 4명을 포함해 총 3,274명이 합격하였다.

승단 인원

| 8단 | 4명 | 5단 | 46명 | 2단 | 566명 | 소년2단 | 171명 |
|----|-----|----|------|------|--------|------|------|
| 7단 | 7명 | 4단 | 69명 | 초단 | 1,353명 | 소년초단 | 756명 |
| 6단 | 15명 | 3단 | 266명 | 소년3단 | 21명 | | |

스포츠인권 침해 신고 방법 안내

▶ 신고 절차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발생 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 상담 및 신고방법
 - 온라인 상담신고: with@k-sec.or.kr
 - 전화상담:신고: 1670-2876/02-6220-1376
 - 방문 및 우편 상담신고: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 9층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대응팀(우:03737)

*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참조: www.k-sec.or.kr.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집증지원 기간 안내

▶ 지원개요

- 담당기관: 스포츠윤리센터
- 지원내용
 -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법률노무지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거소비 등 지원금 지급
- 신청대상
 - 스포츠윤리센터로 상담·신고 접수한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 과거 5년 이내 유관기관·단체를 통해 신고 접수한 피해자 * 타 기관과 중복지원 불가
 - 운영기간: 2021.6.1.(화)~9.30.(목)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지원 신청서 등 * 별첨 신청서 참조
- 신청방법: 이메일(hanna@k-sec.or.kr) 또는 팩스(02-6220-1379)로 신청서 접수

▶ 문의사항 02-6220-1339, 1670-2876 (상담 대표전화)

2021년 제2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1년 5월 27일)

| 8단 | 10473 | 정영재 | 15405 | 이 승 철 | 26251 | 신 가 현 | 3단 | 43183 | 유 선 진 | 43233 | 설 등 혁 |
|----|-------|-------|-------|-------|-------|-------|----|-------|-------|-------|-------|
| | 10474 | 박규일 | 15406 | 이 시 우 | 26252 | 이 승 복 | | 43184 | 강 성 진 | 43234 | 박 예 은 |
| | 10475 | 강동구 | 15407 | 이 우 헌 | 26253 | 차 원 희 | | 43185 | 정 재 훈 | 43235 | 김 지 윤 |
| | 10476 | 이성탁 | 15408 | 전 병 극 | 26254 | 위 성 구 | | 43186 | 현 종 휘 | 43236 | 김 은 혜 |
| | | | 15409 | 김 현 진 | 26255 | 박 경 신 | | 43187 | 박 상 호 | 43237 | 한 규 태 |
| | | | 15410 | 김 호 필 | 26256 | 박 찬 수 | | 43188 | 이 채 빙 | 43238 | 김 태 육 |
| 7단 | 11976 | 김 원 오 | 15411 | 류 경 환 | 26257 | 신 춘 열 | | 43189 | 김 동 우 | 43239 | 이 진 영 |
| | 11977 | 조 민 선 | 15412 | 성 정 숙 | 26258 | 박 선 주 | | 43190 | 안 성 혁 | 43240 | 원 예 은 |
| | 11978 | 주 현 중 | 15413 | 정 희 석 | 26259 | 전 용 육 | | 43191 | 박 현 성 | 43241 | 이 유 주 |
| | 11979 | 임 석 동 | 15414 | 이 광 민 | 26260 | 하 동 호 | | 43192 | 최 준 성 | 43242 | 김 연 준 |
| | 11980 | 서 군 식 | 15415 | 김 성 수 | 26261 | 김 희 경 | | 43193 | 황 인 재 | 43243 | 이 기 혁 |
| | 11981 | 한 윤 희 | 15416 | 김 주 성 | 26262 | 이 진 호 | | 43194 | 김 경 육 | 43244 | 한 승 우 |
| | 11982 | 문 선 귀 | 15417 | 윤 재 현 | 26263 | 김 성 윤 | | 43195 | 황 순 현 | 43245 | 박 현 아 |
| 6단 | 13108 | 이 우 택 | 15418 | 장 덕 모 | 26264 | 이 동 익 | | 43196 | 박 재 석 | 43246 | 임 찬 영 |
| | 13109 | 홍 각 석 | 15419 | 정 지 영 | 26265 | 여 재 동 | | 43197 | 김 상 협 | 43247 | 원 혔 일 |
| | 13110 | 류 현 철 | 15420 | 김 영 혁 | 26266 | 박 정 호 | | 43198 | 이 종 민 | 43248 | 이 수 용 |
| | 13111 | 정 훈 | 15421 | 전 영 해 | 26267 | 구 윤 모 | | 43199 | 배 경 은 | 43249 | 김 대 형 |
| | 13112 | 조 남 구 | 15422 | 김 연 종 | 26268 | 김 한 율 | | 43200 | 이 용 수 | 43250 | 이 혜 민 |
| | 13113 | 손 정 민 | 15423 | 박 종 필 | 26269 | 이 동 주 | | 43201 | 김 상 희 | 43251 | 박 준 오 |
| | 13114 | 이 성 호 | 15424 | 장 은 영 | 26270 | 김 진 우 | | 43202 | 김 정 수 | 43252 | 조 우 진 |
| | 13115 | 용 상 호 | 15425 | 박 경 목 | 26271 | 한 용 일 | | 43203 | 조 규 협 | 43253 | 곽 상 원 |
| | 13116 | 안 경 민 | 15426 | 김 강 일 | 26272 | 박 준 수 | | 43204 | 조 성 협 | 43254 | 원 예 린 |
| | 13117 | 양 성 일 | 15427 | 김 동 건 | 26273 | 김 휘 진 | | 43205 | 김 권 호 | 43255 | 전 영 빈 |
| | 13118 | 신 재 천 | 15428 | 허 채 구 | 26274 | 임 지 영 | | 43206 | 임 경 섭 | 43256 | 차 재 민 |
| | 13119 | 최 성 원 | 15429 | 김 연 륙 | 26275 | 윤 요 한 | | 43207 | 임 대 희 | 43257 | 정 우 희 |
| | 13120 | 최 주 영 | 15430 | 채 창 기 | 26276 | 전 영 길 | | 43208 | 박 종 떡 | 43258 | 황 병 호 |
| | 13121 | 강 인 석 | 15431 | 고 병 현 | 26277 | 윤 준 영 | | 43209 | 김 유 나 | 43259 | 윤 교 상 |
| | 13122 | 남 덕 현 | 15432 | 강 진 수 | 26278 | 김 정 환 | | 43210 | 정 대 화 | 43260 | 이 창 태 |
| | | | 15433 | 김 명 언 | 26279 | 신 송 하 | | 43211 | 오 창 훈 | 43261 | 김 준 태 |
| 5단 | 15388 | 박 종 활 | 26280 | 황 대 운 | | | | 43212 | 김 경 중 | 43262 | 오 지 원 |
| | 15389 | 강 상 윤 | 26281 | 계 재 훈 | | | | 43213 | 박 광 민 | 43263 | 신 민 호 |
| | | | | | | | | | | | |

2021년 제2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1년 5월 2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283 | 이주환 | 43332 | 최효동 | 43381 | 김태형 | 142073 | 안동석 | 142122 | 이명교 | 142171 | 김대호 | 142220 | 심정원 | 142270 | 윤다애 | 142320 | 이정민 | 142370 | 양준혁 | 142420 | 노지훈 | 142470 | 최장군 |
| 43284 | 손수영 | 43333 | 김신범 | 43382 | 조성욱 | 142074 | 정명성 | 142123 | 김영현 | 142172 | 김현우 | 142221 | 박지훈 | 142271 | 이례 | 142321 | 정찬웅 | 142371 | 조광일 | 142421 | 박은지 | 142471 | 최다현 |
| 43285 | 홍민기 | 43334 | 최현성 | 43383 | 사용욱 | 142075 | 김진우 | 142124 | 김석구 | 142173 | 한준호 | 142222 | 석운재 | 142272 | 송태영 | 142322 | 박종훈 | 142372 | 장영구 | 142422 | 이준민 | 142472 | 박상도 |
| 43286 | 강준용 | 43335 | 이정환 | 43384 | 박승순 | 142076 | 고승환 | 142125 | 표국일 | 142174 | 김연주 | 142223 | 김민혁 | 142273 | 서정상 | 142323 | 오병학 | 142373 | 한현민 | 142423 | 정윤우 | 142473 | 이주형 |
| 43287 | 정재훈 | 43336 | 김민규 | 43385 | 임찬호 | 142077 | 강창모 | 142126 | 박진영 | 142175 | 박건형 | 142224 | 강민지 | 142274 | 박가빈 | 142324 | 윤자영 | 142374 | 황성현 | 142424 | 김선규 | 142474 | 최윤도 |
| 43288 | 염태경 | 43337 | 유선호 | 43386 | 박장빈 | 142078 | 박현민 | 142127 | 이승욱 | 142176 | 박민규 | 142225 | 최승동 | 142275 | 윤정우 | 142325 | 윤가영 | 142375 | 강인한 | 142425 | 김창대 | 142475 | 엄찬용 |
| 43289 | 이상경 | 43338 | 강혁 | 43387 | 박주영 | 142079 | 김성환 | 142128 | 장성욱 | 142177 | 배준석 | 142226 | 서보강 | 142276 | 박하름 | 142326 | 이성학 | 142376 | 정종수 | 142426 | 이재민 | 142476 | 홍성우 |
| 43290 | 태경호 | 43339 | 조재민 | 43388 | 이진호 | 142080 | 김리원 | 142129 | 이수형 | 142178 | 채서영 | 142227 | 김가희 | 142277 | 방주혁 | 142327 | 김재현 | 142377 | 임지은 | 142427 | 홍주성 | 142477 | 이사덕 |
| 43291 | 김자환 | 43340 | 양정훈 | 43389 | 김영학 | 142081 | 라유리 | 142130 | 권두한 | 142179 | 천용권 | 142228 | 김소희 | 142278 | 김승균 | 142328 | 조진우 | 142378 | 이지민 | 142428 | 박하진 | 142478 | 송태영 |
| 43292 | 전민 | 43341 | 김영민 | 43390 | 박준서 | 142082 | 신동숙 | 142131 | 정승호 | 142180 | 박태훈 | 142229 | 백승하 | 142279 | 박우연 | 142329 | 신동인 | 142379 | 유태희 | 142429 | 김혜림 | 142479 | 서정원 |
| 43293 | 이민석 | 43342 | 김나윤 | 43391 | 박서영 | 142083 | 김지은 | 142132 | 양자경 | 142181 | 강명구 | 142230 | 김연수 | 142280 | 박현승 | 142330 | 유동국 | 142380 | 최준식 | 142430 | 강승준 | 142480 | 윤휘중 |
| 43294 | 정재석 | 43343 | 노경민 | 43392 | 송서연 | 142084 | 이다예 | 142133 | 배성진 | 142182 | 최지윤 | 142231 | 김광훈 | 142281 | 이창현 | 142331 | 김동현 | 142381 | 김성민 | 142431 | 이한별 | 142481 | 곽혜민 |
| 43295 | 강명관 | 43344 | 이수범 | 43393 | 이충원 | 142085 | 문혜원 | 142134 | 최호선 | 142183 | 최호선 | 142232 | 김재진 | 142282 | 백진호 | 142332 | 박민우 | 142382 | 백준택 | 142432 | 조준민 | 142482 | 김사랑 |
| 43296 | 권민서 | 43345 | 문성찬 | 43394 | 김민종 | 142086 | 임도경 | 142135 | 김벼리 | 142184 | 이상태 | 142233 | 손우혁 | 142283 | 이준영 | 142333 | 이도경 | 142383 | 김채연 | 142433 | 이한별 | 142483 | 이현우 |
| 43297 | 김대혁 | 43346 | 김종훈 | 43395 | 기은지 | 142087 | 임주환 | 142136 | 문정민 | 142185 | 송은선 | 142234 | 황인석 | 142284 | 임승민 | 142334 | 정민준 | 142384 | 김은빈 | 142434 | 이주형 | 142484 | 정진오 |
| 43298 | 장수환 | 43347 | 김종규 | 43396 | 정용훈 | 142088 | 임동술 | 142137 | 김민기 | 142186 | 배영선 | 142235 | 오예은 | 142285 | 조소야 | 142335 | 이시영 | 142385 | 박진아 | 142435 | 이정주 | 142485 | 김이삭 |
| 43299 | 김민석 | 43348 | 김재찬 | 43397 | 정기복 | 142089 | 김영진 | 142138 | 권도진 | 142187 | 오준원 | 142236 | 조민우 | 142286 | 박채운 | 142336 | 최민기 | 142386 | 오수민 | 142436 | 이건우 | 142486 | 김남미 |
| 43300 | 이동찬 | 43349 | 김선우 | 43398 | 지민혁 | 142090 | 이현서 | 142139 | 이정웅 | 142188 | 오준서 | 142237 | 송호현 | 142287 | 김정훈 | 142337 | 최신원 | 142387 | 이동현 | 142437 | 김승환 | 142487 | 김도현 |
| 43301 | 김광원 | 43350 | 박주호 | 2단 | | 142091 | 신지원 | 142140 | 박치우 | 142189 | 정디노 | 142238 | 한성윤 | 142288 | 김민기 | 142338 | 송영준 | 142388 | 김동석 | 142438 | 김명현 | 142488 | 신수호 |
| 43302 | 최혜정 | 43351 | 김선우 | 142092 | 김대호 | 142141 | 이서현 | 142190 | 공민수 | 142191 | 이태욱 | 142239 | 김태인 | 142289 | 박채웅 | 142339 | 김형석 | 142389 | 김명준 | 142439 | 연은진 | 142489 | 박민준 |
| 43303 | 이준환 | 43352 | 김유민 | 142094 | 이재우 | 142093 | 김규리 | 142142 | 오윤지 | 142192 | 이태욱 | 142240 | 김승빈 | 142290 | 이대웅 | 142340 | 김영준 | 142390 | 김아름 | 142440 | 정보덕 | 142490 | 김효성 |
| 43304 | 이진석 | 43353 | 구소정 | 142095 | 신혜민 | 142094 | 백소은 | 142143 | 나정훈 | 142193 | 유채린 | 142241 | 김민우 | 142291 | 오충환 | 142341 | 권준현 | 142391 | 남경민 | 142441 | 김연준 | 142491 | 정영훈 |
| 43305 | 이재현 | 43354 | 김명진 | 142096 | 임세혁 | 142095 | 제정우 | 142144 | 박재현 | 142194 | 김상진 | 142242 | 정우석 | 142292 | 하동주 | 142342 | 김동욱 | 142392 | 서정욱 | 142442 | 송승근 | 142492 | 김혜현 |
| 43306 | 류상준 | 43355 | 이재연 | 142097 | 정명섭 | 142096 | 노현성 | 142145 | 정욱환 | 142195 | 안유지 | 142243 | 류윤아 | 142293 | 홍현서 | 142343 | 김종민 | 142393 | 김유경 | 142443 | 이주찬 | 142493 | 한연준 |
| 43307 | 정동준 | 43356 | 심재우 | 142098 | 오현석 | 142097 | 허승빈 | 142146 | 김성형 | 142196 | 홍준선 | 142244 | 정원필 | 142294 | 김가림 | 142344 | 유승재 | 142394 | 김은빈 | 142444 | 이관주 | 142494 | 이보름 |
| 43308 | 김도영 | 43357 | 김정우 | 142099 | 정예안 | 142098 | 서동균 | 142147 | 이준호 | 142197 | 김민석 | 142245 | 윤인제 | 142295 | 백종현 | 142345 | 이현직 | 142395 | 이나현 | 142445 | 이준희 | 142495 | 박인수 |
| 43309 | 이현정 | 43358 | 김한수 | 142100 | 김준영 | 142099 | 서상웅 | 142148 | 윤해원 | 142198 | 배호빈 | 142246 | 이주현 | 142296 | 김윤하 | 142346 | 한규우 | 142396 | 김은하 | 142446 | 최기원 | 142496 | 박서연 |
| 43310 | 김승훈 | 43359 | 임성빈 | 142101 | 정진영 | 142100 | 조현우 | 142149 | 김휘건 | 142199 | 임혜정 | 142247 | 엄지호 | 142297 | 임종훈 | 142347 | 오태균 | 142397 | 박하나 | 142447 | 김동효 | 142497 | 김영채 |
| 43311 | 손진수 | 43360 | 전다감 | 142102 | 김철희 | 142101 | 강승훈 | 142150 | 이석민 | 142199 | 김영철 | 142248 | 엄수현 | 142298 | 임성재 | 142348 | 정현우 | 142398 | 홍순혁 | 142448 | 권이찬 | 142498 | 조주현 |
| 43312 | 김민주 | 43361 | 최민지 | 142103 | 김솔 | 142102 | 강민정 | 142151 | 김현수 | 142200 | 김경민 | 142249 | 박세환 | 142299 | 김승하 | 142349 | 서영민 | 142399 | 홍성진 | 142449 | 최민혁 | 142499 | 황상연 |
| 43313 | 조정민 | 43362 | 육지형 | 142104 | 서해준 | 142103 | 임경석 | 142152 | 하태현 | 142201 | 김진우 | 142250 | 정광수 | 142300 | 황슬찬 | 142350 | 김승주 | 142400 | 김정주 | 142450 | 공병훈 | 142500 | 김민준 |
| 43314 | 소경환 | 43363 | 장대호 | 142105 | 김도윤 | 142104 | 전솔비 | 142153 | 왕재홍 | 142202 | 송동수 | 142251 | | | | | | | | | | | |

2021년 제2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1년 5월 27일)

| | | | | | | | | | | | |
|--------|-------|--------|-------|------|-------|--------|-------|--------|-------|--------|-------|
| 142520 | 김 민 재 | 142570 | 임 도 윤 | 1134 | 권 서 겸 | 7053 | 서 민 용 | 142363 | 박 근 서 | 142413 | 김 금 미 |
| 142521 | 최 일 근 | 142571 | 김 창 범 | 1135 | 김 영 광 | 7054 | 김 준 영 | 142364 | 현 승 호 | 142414 | 지 병 훈 |
| 142522 | 강 민 성 | 142572 | 이 동 규 | 1136 | 박 용 진 | 7055 | 전 진 석 | 142365 | 노 시 현 | 142415 | 박 성 준 |
| 142523 | 김 찬 혁 | 142573 | 장 재 영 | 1137 | 류 수 민 | 7056 | 유 준 성 | 142366 | 이 다 운 | 142416 | 김 민 준 |
| 142524 | 안 지 연 | 142574 | 이 종 훈 | 1138 | 이 병 철 | 7057 | 김 민 재 | 142367 | 김 경 화 | 142417 | 유 대 성 |
| 142525 | 이 희 재 | 142575 | 최 정 육 | 1139 | 송 윤 우 | 7058 | 김 준 석 | 142368 | 이 지 섭 | 142418 | 안 영 해 |
| 142526 | 조 유 빈 | 142576 | 박 세 라 | 1140 | 이 승 헌 | 7059 | 임 동 혁 | 142369 | 조 근 호 | 142419 | 김 서 현 |
| 142527 | 유 등 락 | 142577 | 장 지 민 | 1141 | 홍 승 운 | 7060 | 전 우 진 | 142370 | 양 준 혁 | 142420 | 노 지 훈 |
| 142528 | 최 민 정 | 142578 | 김 민 석 | 1142 | 강 여 원 | 7061 | 임 승 재 | 142371 | 조 광 일 | 142421 | 박 은 지 |
| 142529 | 조 해 원 | 142579 | 김 철 기 | 1143 | 이 재 준 | 7062 | 김 종 안 | 142372 | 장 영 구 | 142422 | 이 준 민 |
| 142530 | 손 희 영 | 142580 | 문 성 호 | 1144 | 양 연 재 | 7063 | 신 지 호 | 142373 | 한 현 민 | 142423 | 정 윤 우 |
| 142531 | 이 원 혁 | 142581 | 박 준 호 | 1145 | 김 규 원 | 7064 | 김 민 기 | 142374 | 황 성 현 | 142424 | 김 선 규 |
| 142532 | 서 은 주 | 142582 | 김 재 민 | 1146 | 오 용 호 | 7065 | 서 민 준 | 142375 | 강 인 한 | 7070 | 곽 다 현 |
| 142533 | 김 현 우 | 142583 | 김 하 린 | | | 7066 | 채 동 훈 | 142376 | 정 종 수 | 7071 | 하 채 무 |
| 142534 | 김 태 안 | 142584 | 최 민 준 | | 소년 2단 | 7067 | 박 민 건 | 142377 | 임 지 은 | 7072 | 윤 예 준 |
| 142535 | 김 수 빙 | 142585 | 우 성 효 | 7018 | 이 윤 성 | 7068 | 최 윤 성 | 142378 | 이 지 민 | 7073 | 김 영 훈 |
| 142536 | 김 찬 호 | 142586 | 고 승 건 | 7019 | 류 태 훈 | 7069 | 김 성 윤 | 142379 | 유 태 희 | 7070 | 곽 다 현 |
| 142537 | 김 태 희 | 142587 | 홍 영 빈 | 7020 | 김 기 우 | 142330 | 유 동 국 | 142380 | 최 준 식 | 7070 | 곽 다 현 |
| 142538 | 박 건 도 | 142588 | 김 천 두 | 7021 | 이 다 현 | 142331 | 김 동 현 | 142381 | 김 성 민 | 7071 | 하 채 무 |
| 142539 | 박 수 창 | 142589 | 김 준 혁 | 7022 | 남 가 을 | 142332 | 박 민 우 | 142382 | 백 준 택 | 7072 | 윤 예 준 |
| 142540 | 박 정 운 | 142590 | 조 성 호 | 7023 | 장 민 우 | 142333 | 이 도 경 | 142383 | 김 채 연 | 7073 | 김 영 훈 |
| 142541 | 편 수 완 | 142591 | 김 정 호 | 7024 | 정 현 우 | 142334 | 정 민 준 | 142384 | 김 은 빈 | 7074 | 김 병 주 |
| 142542 | 김 해 민 | 142592 | 김 승 보 | 7025 | 박 상 연 | 142335 | 이 시 영 | 142385 | 박 진 아 | 7075 | 조 원 진 |
| 142543 | 박 세 준 | 142593 | 안 정 범 | 7026 | 이 원 | 142336 | 최 민 기 | 142386 | 오 수 민 | 7076 | 김 대 육 |
| 142544 | 박 한 별 | 142594 | 오 승 현 | 7027 | 강 수 빙 | 142337 | 최 신 원 | 142387 | 이 동 현 | 7077 | 조 원 빈 |
| 142545 | 변 진 석 | 142595 | 문 지 수 | 7028 | 김 의 성 | 142338 | 송 영 준 | 142388 | 김 동 석 | 7078 | 이 승 훈 |
| 142546 | 이 창 목 | 142596 | 신 영 응 | 7029 | 강 지 응 | 142339 | 김 형 석 | 142389 | 김 명 준 | 7079 | 차 다 인 |
| 142547 | 천 세 훈 | 142597 | 김 상 현 | 7030 | 최 이 삭 | 142340 | 김 영 준 | 142390 | 김 아 름 | 7080 | 김 태 우 |
| 142548 | 최 종 원 | 142598 | 이 석 호 | 7031 | 김 단 우 | 142341 | 권 준 현 | 142391 | 남 경 민 | 7081 | 김 태 형 |
| 142549 | 최 지 훈 | 142599 | 이 준 수 | 7032 | 정 재 민 | 142342 | 김 동 육 | 142392 | 서 정 육 | 7082 | 한 준 우 |
| 142550 | 하 동 현 | 142600 | 김 호 연 | 7033 | 김 영 민 | 142343 | 김 종 민 | 142393 | 김 유 경 | 7083 | 이 상 민 |
| 142551 | 한 병 현 | 142601 | 안 정 민 | 7034 | 김 도 현 | 142344 | 유 승 재 | 142394 | 김 은 빈 | 7084 | 윤 도 원 |
| 142552 | 김 정 은 | 142602 | 김 민 재 | 7035 | 신 민 솔 | 142345 | 이 현 직 | 142395 | 이 나 현 | 7085 | 권 원 희 |
| 142553 | 김 학 진 | 142603 | 정 의 현 | 7036 | 엄 윤 상 | 142346 | 한 규 우 | 142396 | 김 은 하 | 7086 | 김 도 완 |
| 142554 | 이 주 원 | 142604 | 신 명 빈 | 7037 | 김 지 현 | 142347 | 오 태 균 | 142397 | 박 하 나 | 7087 | 김 재 원 |
| 142555 | 정 하 나 | 142605 | 윤 혜 성 | 7038 | 이 국 승 | 142348 | 정 현 우 | 142398 | 홍 순 혁 | 7088 | 강 민 주 |
| 142556 | 홍 수 빙 | 142606 | 김 병 기 | 7039 | 이 재 을 | 142349 | 서 영 민 | 142399 | 홍 성 진 | 7089 | 김 관 우 |
| 142557 | 박 채 림 | 142607 | 이 건 희 | 7040 | 전 무 겸 | 142350 | 김 승 주 | 142400 | 김 정 주 | | |
| 142558 | 송 치 호 | 142608 | 송 지 유 | 7041 | 정 서 준 | 142351 | 신 중 혁 | 142401 | 전 희 진 | | |
| 142559 | 최 준 | 142609 | 박 소 희 | 7042 | 범 시 윤 | 142352 | 홍 설 민 | 142402 | 이 세 희 | | |
| 142560 | 송 민 재 | | | 7043 | 박 지 민 | 142353 | 권 용 훈 | 142403 | 노 예 진 | | |
| 142561 | 임 태 규 | | | 7044 | 백 지 호 | 142354 | 임 푸 름 | 142404 | 박 서 연 | | |
| 142562 | 김 진 우 | | | 7045 | 성 예 준 | 142355 | 이 종 민 | 142405 | 이 채 영 | | |
| 142563 | 손 예 린 | | | 7046 | 안 진 성 | 142356 | 이 현 수 | 142406 | 박 채 영 | | |
| 142564 | 박 경 진 | | | 7047 | 전 태 한 | 142357 | 이 연 서 | 142407 | 이 상 호 | | |
| 142565 | 김 한 별 | | | 7048 | 김 덕 수 | 142358 | 구 혜 빙 | 142408 | 조 성 우 | | |
| 142566 | 조 성 재 | | | 7049 | 이 유 찬 | 142359 | 김 종 현 | 142409 | 김 효 섭 | | |
| 142567 | 김 창 민 | | | 7050 | 최 우 진 | 142360 | 한 수 아 | 142410 | 류 경 민 | | |
| 142568 | 장 소 영 | | | 7051 | 김 현 성 | 142361 | 김 연 아 | 142411 | 장 민 석 | | |
| 142569 | 천 우 성 | | | 7052 | 이 지 흥 | 142362 | 손 은 재 | 142412 | 이 재 현 | | |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2021년 제2차 정기승단자 명단

(2021년 5월 27일)

142520 142521 142522 142523 142524 142525 142526 142527 142528 142529 142530 142531 142532 142533 142534 142535 142536 142537 142538 142539 142540 142541 142542 142543 142544 142545 142546 142547 142548 142549 142550 142551 142552 142553 142554 142555 142556 142557 142558 142559 142560 142561 142562 142563 142564 142565 142566 142567 142568 142569

142570 142571 142572 142573 142574 142575 142576 142577 142578 142579 142580 142581 142582 142583 142584 142585 142586 142587 142588 142589 142590 142591 142592 142593 142594 142595 142596 142597 142598 142599 142600 142601 142602 142603 142604 142605 142606 142607 142608 142609

142610 142611 142612 142613 142614 142615 142616 142617 142618 142619 142620 142621 142622 142623 142624 142625 142626 142627 142628 142629 142630 142631 142632 142633 142634 142635 142636 142637 142638 142639 142640 142641 142642 142643 142644 142645 142646 142647 142648 142649 142650 142651 142652 142653 142654 142655 142656 142657 142658 142659

A dramatic, low-key lighting photograph of two male judo players in competition. One player, wearing a blue gi, is in a dominant position, holding the other player's white gi. The player in white has a beard and is looking down. The background is dark, making the players stand out.

adidas
JUDO

ADIDAS COMBAT SPORTS KOREA

acskorea.co.kr

ADIDAS JUDO

아디다스 유도 공식 대리점

성우스포츠

010.6474.1372

아디다스 컴뱃스포츠는 대한민국 유도 국가대표팀을 후원합니다.

JEWOO INTERNATIONAL CO.,LTD.

서울 서초구 명달로 65 일흥스포타운 4층